

#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

### 일시

2021년 10월 27일 (수)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및 비대면 화상회의(ZOOM) 접속



|**개회**|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탁상담통계발표**| ------- 차연실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질의응답 및 정리|

### 목 차

# |주제발표|

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부모와 비혼성인자녀관계를 중심으로 1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41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토론발표
1
2 7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377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수탁상담통계|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통계 - 부모자녀간 폭력을 중심으로 ············ 8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주제발표|

###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부모와 비혼성인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

신 연 희(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가족의 변화양상과 주요쟁점
- 1. 실태로 본 한국 가족 (가족의 구조, 가족가치관, 가족기능, 가족관계)
- 2.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III.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특성
- 1. 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2. 사회변화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
- IV. 한국 가족 전망과 대응
- 1. 한국 가족의 변화 전망
- 2. 맺음말
- < 참고문헌 >

#### I. 들어가는 말

한국 가족은 변화된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한 경계가무너지고, 가족개념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있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 역시 달라져 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가족의 위기", "가족의 해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한국 가족은 위기이고 이대로 간다면 해체되어 존재하지 않게될 것인가?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회제도와 가족구성원들의 대응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가족의 위기"라는 의미는 사회의 지배세력(주로 중산층 남성)이 지키려고 하는 가족과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라고 다이애나 기틴스(Dinna Gittins, 1985)는 말한다. 성차별적이고 불평등을 전제로 하였던 가족의 기능,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역할과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 현상을 가족의 위기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해체의 과정이며 가족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을까? 이다. 제도화되고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 제도를 벗어나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수적 관점에서는 가족의 해체로 반응할 수 있다. 다양성으로 특징되는 현대 가족의 모습은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못 한 가족, 보편적 가족과 비주류 및 일탈가족으로 구분하는 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 이다.

벡 게른스하임(Beck-Gernsheim)은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논의에서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가족 이후에 오는 것은 역시 가족이다."라고 대답한다(Beck-Gernsheim, 1998; 서수경, 2002 재인용). 가족은 변화하는 모습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논의들은 한결같이 근대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가족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가족은 모든 사회구성체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구드(Goode, 1964; 김미숙, 2006 재인용)는 근대 핵가족도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가족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1) 가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개인주의화, 다양화, 탈제도화는 오늘날 가족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개인주의화된 포스트모던 가족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서수경, 2002). 포스트모던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다른 가족의 모습이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한국의 가족은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 서구에서 진행된 가족의 모습과 다른 점이다.

한국 가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이 되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증가하고, 가족생활은 확연히 달라졌으며, 전통적인성역할 분화는 탈피되어 가고, 부모-자녀관계가 일방적 아닌 상호적 권위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는 200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이동원 외, 1999). 가족의 구조는다양해지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는 달라지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어 상당부분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개개인의 행복의 토대이며, 복지제공자로서의 가족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가족의 변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가족은 가족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기피현상,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조화의 어려움, 이혼가족의 자녀문제, 고령사회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의 위기, 세대 간 격차의 심화, 지속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 등은 사회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함인희, 2010). 이에 본고에서는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미

<sup>1)</sup> 구드(Goode, 1963; 이재경, 2018 재인용)는 구조기능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출현을 설명하였다. 산업화는 가족의 유대나 의무에 의해 노동하는 농경사회와는 달리 개인 노동력의 가치가 교환되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친족공동체는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젊은 성인들은 결혼과 아동양육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독립단위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부가족(conjugal family)이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인 핵가족이라 하였다.

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심포지엄이 부모자녀 간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부모와 성인자녀관계를 검토하는 일도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국 가족의 변화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한국 가족의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대한 혼돈과 도전이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인간적인 가족형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다(이재경, 2018). 후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는 가족변화의 주된 양상을 살펴보고, 미래전망 및 대처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로 구성된가구의 발생을 이 시대 한국 가족이 안고 있는 현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자료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공식통계자료는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자료로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가족의 실태 및변화양상을 찾고자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한국 가족의 변화를 설명할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 II.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주요 쟁점

#### 1. 실태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

이하에서는 한국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가족의 변화추세 및 양상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항목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고, 통계치의 단위가 상이하여비교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기간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원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 중 제2차(2010년 실시), 제3차(2015년 실시), 제4차(2020년 실시) 조사 자료이다. 이들 원 자료는 한국 가족의 변화특성을 찾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맞게 가족의 구조, 가족가치관, 가족기능,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원 자료의 기초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 자료 기초정보>

- . 「2010년가족실태조사」: 전국의 2,5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4,754명
- . 「2015년가족실태조사」: 전국 5,018가구 12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 10,912명
- . 「2020년가족실태조사」: 전국 10,997가구 대상, 12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 22,913명
- 1) 가족 구조의 변화
- (1) 1인 가구의 증가와 2세대 가구의 감소
- ① 전형적 가족형태는 사라져간다.

한국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뚜렷한 현상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감소현상이다. 가족의 전형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던 2세대(부부

와 미혼자녀/ 조부모+ 손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세대 가구는 61.0(1990년) → 60.0명 (2000년) → 58.2(2010년) → 56.4(2015년) → 43.1(2020년)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6.9%(1985년) → 15.8% (2010년) → 21.3%(2015년) → 30.4% (2020년)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2-1>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10년에 1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3%, 2020년에는 30.4%에 이르고 있다. 10년 동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셈이다. 독신 가구(1인 가구)의 증가폭은 놀라운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세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결혼하지 않은 비혼 1인 가구와 홀로 남겨진 노인 1인 가구는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 이혼자,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며,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반면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2세대 가구), 전형적인 핵가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58.2%와 56.4%로 절반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43.2%로 나타났다. 10년 사이에 무려 15%p나 감소하였다. 1인 가구가 10년 사이에 15%p 정도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통계청도 우리나라 장래 가구형태의 변화를 유사하게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자녀가구(28.8%), 한부모+자녀가구(10.2%)이던 것이 2045년에는 각각16.8%, 9.5%로 줄어들고, 이에 반해 2020년에 부부단독가구(16.6%)와 1인 가구(30.3%)는 2045년에 각각 21.4%와 37.1%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21).

- 2세대 가구의 감소현상
  - . 부부 + 자녀가구: 28.8% (2020년) → 16.8% (2045년)
  - . 한부모 + 자녀가구: 10.2% (2020년) → 9.5% (2045년)
- 단독 가구의 증가현상
- . 부부 단독가구: 16.6 (2020년) → 21.4% (2045년)
- . 1인 가구: 30.3% (2020년) → 37.1% (2045년)
-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2021. (https://kosis.kr/search/search.do)

#### ② 가구원수도 줄어든다.

평균가구원수의 감소 현상 또한 뚜렷하다. 5명(1975년) → 2.9명 (2010년) → 2.3 명(2020년)이다. <표 2-1>에서 평균가구원 수(함께 사는 가족원과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가족원 합)는 해당 연도별로 2.9명(2010년) → 2.8명(2015년) → 2.3명(2020년)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인 가구: 6.9%(1985년) → 15.8% (2010년) → 21.3%(2015년) → 30.4% (2020년)

. 평균가구원수: 5명(1975년) → 2.9명 (2010년) → 2.3명(2020년)

#### <표 2-1> 세대 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단위: %, 명)

	세대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1세대	6.1	9.9	21.0	16.6 (15.9)기타제외	22.8 (21.1)기타제외
,n-n ¬ ,1	2세대	61.0	60.0	58.2	56.4	43.2
세대 <del>구</del> 성 (%)	3세대이상			4.9	5.7	3.2
(70)	1인 가구			15.8	21.3	30.4
	비혈연가구*			-	-	0.5
	전체 가족			100.0	100.0	100.0
평균 🤊	가구원수(명)			2.9명	2.8명	2.3명

주: 비혈연가구는 2020년부터 조사

평균 가구원수 = 함께 사는 가족원 +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가족원

주: 1세대: 부부가구 + 기타

2세대: 부부+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3세대: 부모+자녀부부+손자녀, 한부모+자녀부부+손자녀

※ 자료축처

① 1990-200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서선희, 2017 재인용)

② 2010년-2020년 자료: 여성가족부, (2016: 63, 2021: 36)

#### ③ 1인 가구 증가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림 2-1)은 2020년 조사결과 1인 가구 중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72.1%로 매우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70세 이상 86.8%), 미래 세대인 20대 이하(20대 55.2%)와 19세 이하(76.3%) 역시 혼자 살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장래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미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60.0%)이 향후 혼자 살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비혼 현상과 맞물려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향후 혼자 살 계획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5.31.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자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3세대의 대가족 사례는 흔하지 않은지 오래이며,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던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 대신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 (2)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변화

①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지고 있다.

과거 비주류로 보았던 가족유형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가족 가치관의 세대 간 격차는 커서 젊은층일수록 가족의 형태에 대한 유연성이 크다.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게 하는 점이다.

<표 2-2>에서는 지금까지 비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를 보여준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5년의 간격이지만 변화경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비혼독신, 비혼동거, 비혼출산 모두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연령별 차이가 심하며, 젊은 세대일수록 수용도가 높다. <표 2-2>에서 보면, 비혼동거(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증가하고 있어서 21.1%(2015년) → 26%(2020년)로 변화하였다.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여 2020년 기준으로 20대 46.6%, 50대 16.9%, 60대 13.0%, 70세 이상 10.0%로 나타났다(20대와 70세 이상 36.6%p 차이). 이와 같은 연령대별 격차는 특히 20대와 그들의 부모세대인 50-60대 간의 뚜렷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혼 독신에 대한 수용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32.4%(2015년) → 34.0%(2020

년)으로 상승하였고,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여 (2020년 기준) 20대 53.0%, 50대 26.0%, 60대 19.3%, 70세 이상 12.1%로 나타났다(20대와 70세 이상 40.9%p 격차). 한편 비혼출산은 9.5%(2015년) → 15.4%(2020년)로 증가하고 있다. 세대 간 격차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020년을 기준으로 20대 23%, 50대 12.5%, 60대 11.0%. 70대 이상 8.8%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는 명료하다(20대와 70세 이상 14.29%p 격차).

. 비혼 동거 수용율: 21.1%(2015년) → 26.0%(2020년)

. 비혼 독신 수용율: 32.4%(2015년) → 34.0%(2020년)

. 비혼 출산 수용율: 9.5%(2015년) → 15.4%(2020년)

#### ②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와 (그림 2-2)에서 보면, 젊은층으로 갈수록 가족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특히 20대의 생각이 가장 진보적이어서 비혼동거, 비혼독신, 비혼출산에 대한 항목 모두 20대의 수용도가 가장 높고 20세미만-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의 순이다(여성가족부, 2021: 64-65). 20대는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세 이전은 교육을 통해 사회화된 기존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이 혼재한 상태일 수 있다. 부모자녀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은 20대 자녀와 이들의 부모세대인 50대 및 60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더하여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2008년 다문화가구 수는 14만 4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30천 명으로 집계되어 10년 동안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구 수는 31만 9천 가구이고 전체 가구원 수는 96만 4천 명으로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백만 명에 가깝다(여성가족부, 2019: 3).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들은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표 2-2> 가족의 다양성 수<del>용</del>도

(단위: %)

			(E11 :-)
	항목	2015년	2020년
	비혼 독신	32.4	34.0
각 항목별 동조율	비혼 동거	21.1	26.0
	비혼 출산	9.5	15.4

<sup>※</sup> 주석 및 자료출처

<sup>-</sup> 단위(%):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에 대한 동조율 (여성가족부, 2021.05. 31. 보도자료)

#### [가족다양정 동의율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60.0 (단위: %) 53.0 52.5 50.0 46.6 37.0 40.0 32.4 34.0 29.1 28.3 30.0 26.0 25.3 23.0 21.3 21.1 20.0 15.4 95 8.4 10.0 0.0 비혼독신 비혼동거 무자녀 비혼출산 비혼독신 비혼동거 무자녀 비혼출산 전체 20EH ■ 2015 ■ 2020

(그림 2-2) 가족다양성 수용도(2015년, 2020년 비교)

<그림 출처>: 2020년가족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1.5.31.보도자료)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017c186e62014fca84d1dd8776063502.h wp&rs=/rsfiles/202110/

- 2) 가족 가치관 변화
- (1)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

#### ① 우리 가족의 범위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범위에서 부모, 자녀, 배우자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가족의 형성을 혈연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표 2-3>은 가족의 범위에 관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에 대한 동조율은 부모(87.4%), 자녀(85.4%), 배우자(83.5% 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형제자매(76.1%), 함께 사는 비혈연자(3.5%)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45), 2010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서 당시에는 자녀(86.2%), 배우자(81.6), 부모(77.5), 형제자매(63.3), 배우자부모(50.5), 함께 사는 비혈연자(1.1%)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가족의 범위로 비혈연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으로 보는 태도가 늘어가는 것은 혈연중심적 가족의 정의는 점차 약화되어 간다는 의미이다. 비혈연 관계도 가족으로 보는 태도는  $1.1\%(2010년) \rightarrow 3.3\%(2015년) \rightarrow 3.5\%(2020년)$ 이다.

이에 대해 가족학자들은 점차 가족의 의미에 대해 경제 공동체이자 정서 공동체로

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양식이라면 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지,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형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혈연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함인희, 2010).

<표 2-3> 주관적 가족의 범위에 대한 동조율

항 목	2010년	2015년	2020년
배우자	81.6	82.1	83.5
부모	77.5	86.3	87.4
형제자매	63.3	76.0	76.1
배우자 부모	50.5	56.9	
자녀	86.2	83.8	85.4
함께사는 비혈연자	1.1	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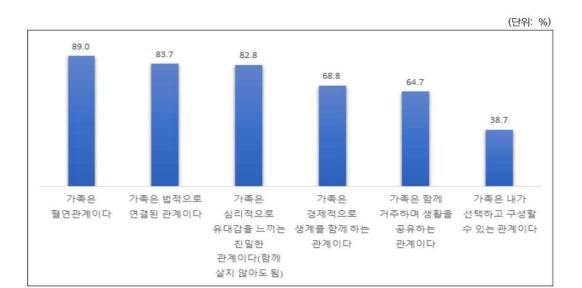
<sup>\*</sup>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1: 165, 2016: 86 & 89, 2021: 45)

#### ② 가족의 정의

가족의 의미(정의, 개념)에서 탈제도화 현상이 발견된다. 제도적 혈연관계는 감소하고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에서 가족의 정의에 대한 동조율이 높은 순서대로 혈연관계(89.0%),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7%),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동거여부 무관82.8%),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68.8%),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64.7%),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8.7%)의 순이다(여성가족부, 2021: 49-50).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정의에서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인정된 가족 즉 혈연관계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대한 동조율은 여전히 매우 높다. 제도적 가족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된 사고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물리적인 거주공유보다는 심리적 유대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거주공간공유(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가 가족이다)와 심리적 유대감에 대한 동조율(함께 살지 않더라도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은 각각 64.7%와 82.8%로 후자가 월등히 높다(여성가족부, 2021: 50).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에서 주거를 함께 하는 의미는 변화되고 있어서 가족은 함께 사는 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네트워크 사회, 메타 버스(meta verse) 시대에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 가족의 정의(2020년 조사)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21: 50).

#### (2)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

#### ① 비혼에 대한 태도

결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더욱 그렇다. 결혼의 당위성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차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은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감소하고 있어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약화되고 있다. <표 2-4>에서 비혼 독신은 32.4%(2015년) → 34.0%(2020년)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혼관은 이전하고 있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뚜렷해져 가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개인화 현상이다.

#### ② 무자녀, 비출산에 대한 태도

결혼을 한 경우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생애주기의 당연한 과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혼은 이미 개인의 자율적 선택사항이 되었고, 출산을 결혼의 연속과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표 2-4>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결과이다. 무자녀 동조율이 21.3%(2015년) → 28.3%(2020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 (24.3%),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24.8%),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9.7%), 있는 편이좋다(64.2%)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 174). 무자녀에 대한 동조율이 2010년에는 10명 중 한 명(9.7%)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사이에 10명 중 2.8 명(28.3%) 수준으로 급상승한 것이다.

나아가 출산관에서 젊은층일수록 무자녀에 대한 동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저출산 문제의 심화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2020년 조사에서 무자녀에 대한 동조율은 20대(52.5%)와 50대(18.5%), 60대(12.7%), 70세 이상(7.5%)로 20대와 70대의 격차는 45.0%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64-65). 세대 간 격차가확연하며, 미래에 출산의 중심이 되는 젊은 세대들의 무자녀 출산관은 우리사회의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하게 한다.

낮은 출산율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한다. 출산에 대한 태도(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증가추세이다. 이에 비해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자녀가 필요하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 + 갖는 것이 좋다)는 감소 추세이다. 낮은 출산율은 결혼과 출산의 분리현상을 의미한다. 자녀는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인식은 변화되었고 이제 부부관계에서 선택적 무자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2-4> 결혼관과 출산관 (2020년 조사)

(단위: %)

	항목	2015년	2020년
각 항목별 동조율	비혼독신 (결혼가치관)	32.4	34.0
今次五	무자녀 (자녀출산 가치관)	21.3	28.3

#### ※ 주석 및 자료출처

- 단위(%):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에 대한 동조율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21.05. 31.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3) 가족기능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재생산과 양육 및 부양이다. 인생의 어느 시기도 누군가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삶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가족은 이에 관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서선희, 2017).

#### (1) 가족의 재생산 기능

#### ① 낮은 출산율 현황

저출산 1위국이 된 한국은 재생산에 관한 가족기능이 심하게 약화되어 있다. 출산을 통한 재생산은 전통적이고 중요한 가족의 기능이다. 한국 가족은 출산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1.57명 (1990년) 1.63명(1995년) 1.2명(2010년) 0.84명(2020년)이 되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2018년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꼴찌국가가 되었다. 2020년 한해 내내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도 되지 못하였다. 출생아수의 감소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여서 이대로 간다면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선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1.57명(1990년) → 1.63명(1995년) → 1.2명(2010년) → 0.84명(2020년)

#### ② 이상적 자녀수와 희망자녀수의 간격

< 포 2-5>는 2010년 조사와 2015년 조사의 기혼자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적정자녀수와 희망자녀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데 희망자녀수가 적정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2010년은 0.4명, 2015년은 0.88명으로 그 간격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출산기피 이유로 남녀 모두 연령에 대한 부담(남자 37.4%, 여자 41.4%), 자녀교육 부담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남자 34.3%, 여자 31.3%)의 순이다(여성가족부, 2011: 242). 2015년 조사에서도 출산기피 이유에 관한 순위는 유사하여 응답율이 높은 순서대로, 연령에 대한 부담(42.2%),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하여(39.9%). 경제적 부담(13.3%)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할 때 2위와 3위가 바뀌었을 뿐이다. 기혼자의 출산기피 이유로 연령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가장 큰 이유인 것을 볼 때 출산기피 현상은 만혼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출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항목	2010년	2015년
-1, 1, 1	이상적 자녀수(적정 자녀수)	2.3명	2.26명
자녀 수	출산계획시 희망 자녀수	1.9명	1.38명
	연령에 대한 부담(나이가 많아서)	39.5%	42.2%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	18.2%	39.9%
출산기피 이유(주요	경제적 부담	23.3%	13.3%
이ㅠ(ㅜ표 항목들)	자녀 양육스트레스	4.6%	0.2%
	부부 애정만으로 충분해서	0.7%	0.4%
	육아부담	1.2%	1.7%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1: 229 & 237 & 242, 2016: 165-168)

#### (2) 부양과 돌봄 기능의 약화

#### ① 노후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가 되었다. 부모세대들의 대부분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한다. <표 2-6> 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8.8%(2010년) → 5.3%(2015년) → 4.7%(2020년)이다. 반면에 혼자 살겠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어서 6.9%(2010년) → 11.9%(2015년) → 15.9%(2020년)이다. 노인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 부양관의 변화와 맞물려서 가속화 될 것이다.

#### <표 2-6> 노후 함께 살 사람

단위: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배우자와 단 둘 (함께)		72.7	66.8	67.4	
나 :	혼자	6.9	11.9	15.9	
유료 노인	<u>복</u> 지시설	4.7	12.6	8.1	
무료 노인	[복지시설	3.8	12.0	0.1	
자 녀	형편이 되는 자녀	3.8	1.1		
(자녀 합: 2010년 8.8%,	맏 아들	3.7	1.9	4.7	
2015년 5.3%, 2020년	아들 가운데 한명	0.9	1.4	4.7	
4.7%)	딸 가운데 한명	0.4	0.9		
친구/애인		1.0	1.2	1.0	
반려동물과 함께		_	1.2	2.2	
기타		2.1	1.1	0.7	
전	체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0: 467, 2015: 365, 2020: 288)

#### ② 가족 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표 2-7>을 볼 때,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의식과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의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부양 및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특히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데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42.5%(2015년) → 25.8%(2020년)이고,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 역시 감소추세여서 57.4%(2015년) → 39.4%(2020년)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의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자녀들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오히려 증가하여 33.7%(2015년) → 37.6%(2020년)이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19.5%(2015년) → 16.8%(2020년) 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21: 341).

-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42.5%(2015년) → 25.8%(2020년)
-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57.4%(2015년) → 39.4%(2020년)
- .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33.7%(2015년) → 37.6%(2020년)
- .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19.5%(2015년) → 16.8%(2020년)

종합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은 약해지지 않고 있는데 비해,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약해지고 있다. 부모세대들의 부양책임의식은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세대들의 그것에 비하여 변화가 적다. 특히 자녀가 취업할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강화된 것은 오늘날 청년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진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부모세대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청년 실업 및 고용불안정이 계속된다면 그만큼 부모세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 노후부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게 될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 <표 2-7> 가족 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항목	2010년(평균점수)	2015년(%)	2020년(%)
자녀의 노부모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3.4	42.5	25.8
부양책임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3.5	57.4	39.4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3.2	19.5	16.8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	결혼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손자녀돌보기 등)	3.0	13.7	9.8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33.7	37.6

- \* 2010년 조사: 단위(평균점수:), 1 매우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 \* 2015년, 2020년 조사: 단위(%), 대체로 만족 + 매우만족에 대한 동조율
-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1: 184, 2016: 120, 2021: 86)

#### 4. 부부관계 및 가족문화의 변화

#### 1) 부부관계 만족도

배우자 관계는 규범 중심에서 친밀성을 강조하는 관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부간 의사소통 만족도를 볼 때, 의사소통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2-8>에 의하면 41.2%(2015년), 46.9%(2020년)로 변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25). 나아가 2020년을 기준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만족도는 29세 이하가 70.6%로 매우 높고, 50대(42.1%)와 60대(42.0%)가 다른 연령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젊은층 부부들의 부부관계는 특히 긍정적이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관계에 '만족'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51.2%(2015년)이던 것이 57.0%(2020년)로 상승하였다. 나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확연하다. (그림 2-4)에서 보여지듯이 2020년을 기준으로 부부관계의 전반적 만족도(대체로만족+매우만족)는 20대가 가장 높은데 비해(78.0%), 60대(51.9%)가 가장 낮다(여성가족부, 2016: 221, 2021: 125). 나아가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의 긍정적 변화양상은 뚜렷하다. 조사시기별로 부부관계의 전반적

만족도는 51.2%(2015년), 57.0%(2020년)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157).

. 배우자와 의사소통 만족도: 41.2%(2015년) → 46.9%(2020년)

. 배우자와 전반적 만족도: 51.2%(2015년) → 57.0%(2020년)

#### <표 2-8> 부부관계

단위: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부부간 의사소통	15년 조사	19.3	39.6	41.2
만족도	20년 조사	12.6	40.4	46.9
부부관계 전반적	15년 조사	11.6	37.1	51.2
만족도	20년 조사	10.6	32.5	57.0

- \* 단위(% 만족(대체로 만족 +매우만족), 불만족(매우불만족 + 다소 불만족)에 대한 동조율
-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1: 267-268, 2016: 191& 220, 2021: 125 & 157 )



(그림 2-4) 연령대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 \* 부부관계 만족도(대체로 만족 + 매우만족 비율)
- \* 원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0가족실태조사, p. 157

#### 2) 부부의 가사 수행

지금까지 여성의 희생과 부담으로 수행되었던 가사는 부부간 분담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향상되고, 가사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부부갈등 소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포 2-9>에 의하면, 부부의 가사 수행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부간 분담이 높아 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부부는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가사노동 56.4%, 자녀양육 및 교육 49.2%, 가정생활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80.8%). 여전히 여성들의 가사부담은 큰 상태이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교육이 평등하게 분담되

고 있다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되고 있는 현상은 장래 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부가 함께 (부부공동형)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과거에 남편이 주로 하거나 아내가 주로 하던 방식은 부부공동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와 가사수행을 여성이 독박하던 현상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여전히 아내의 역할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부간 가사수행의 평등한 분담이 완전하게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에 만족할수록, 부부간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분담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부간 평등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관계에 대해 더 만족도가 높아 부부관계는 연령, 경제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21: 157-158).

<표 2-9> 가사 수행 부부간 분담

	전체			29세 이하		
가사 항목들	남편이 주로	둘이 똑같이	아내가 주로	남편이 주로	둘이 똑같이	아내가 주로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등 가사노동	2.8	26.6	70.5	2.9	56.4	40.7
자녀양육과 교육	2.9	39.2	57.9	0.7	49.2	50.1
가정생활 유 지위한 계획과 준비	10.1	65.7	24.1	9.8	80.8	9.4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1.5.30. (웹사이트 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부부관계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부부간 의사소통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었던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 동등한 분담이 젊은층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볼 때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주시할 때 한국의 가족문화는 달라질 것이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이다. 가족문화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으로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소통은 가치관, 의식, 신념과 같은 가족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윤소영 외, 2021: 24). 예를 들어 과거 유교규범에는 효, 충, 위계질서, 개인보다 가문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근대에 와서는 성별 역할분담. 부모 혹은 부부로서의 책임과 도리가 중요한 가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전반적인 개인화 현상과 함께 가족관계에서도 개별 가족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를 중시하는 친밀감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개인화와 맞물려 제도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가족문화가 형성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2.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 가족 변화의 주된 양상을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한국 가족의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는 대립되는 논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1)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화 논쟁

#### (1) 포스트모던 가족담론

탈근대, 후기 산업사회는 근대 산업사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이고, 오늘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이란 서구에서 근대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가족에 대해 규정한 개념이다(Hoffmann-Nowotny, 1991; 서수경, 2002 재인용). 20세기 중·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근대의 핵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 앞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족에 대한 정의까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201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중심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근대주의이다. 1960년대 서구의 문화운동에서 시작하여 사회,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이념을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특성으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김정우 2006). 첫째, 이성주의와 보편주의 형이상학을 비판한다. 둘째,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비판한다. 현대의 과학이 추구하는 객관성과 규칙성,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믿는 신념에대해 부정적이다. 셋째, 통합성을 특성으로 하는데 합리성과 비합리성,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객관적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한다. 넷째, 상대성을 강조한다. 절대적 진리, 영원불편의 법칙, 보편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상대성과 다양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특징이다.

종합하자면 포스트모던 사회의 주된 특성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며, 보편적 현상보다는 상대성을 인정하고,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객관성과 규칙성보다는 불규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모던 가족의 모습 또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근대가족과 구별되는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관계 중심의 가족은 서구포스트모던 가족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이다(서수경, 2002). 다시 말해 가족집단 내지는전체적 차원에서 가족을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점을 중시하는 개인주의화, 가족의형태가 다양해지는 다원화, 결혼제도에 입각한 가족의 형태보다는 비혼이나 사실혼등과 같이 결혼제도에서 벗어난 가족형태가 증가하는 탈제도화, 가족의 질서와 규범보다는 가족구성원 간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적 가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쇼터(Shorter)는 "관계"를 포스트모던 가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는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원은 모든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관계를 통해 자기실현을 하며, 관계를 통한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한다고 보았다(Shorter, 1989; 서수경, 2002 재인용).

"구조-문화-도식의 이론"을 통해 포스트모던 가족을 설명한 호프만-노보트니 (Hoffmann-Nowotny)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화의 과정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주의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변화된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의 관계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다섯가지의 가족형태(혼합적 가족형태, 독신, 시민가족, 분리동거형태, 편부모 가족)로 설명하였다(Hoffmann-Nowotny, 1995; 서수경, 2002 재인용).2) 미래가족은 그중에서전 생애에 걸쳐 여러 명의 파트너와 동반하게 되는 가족형태가 될 것이며,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의 변화과정에서 "분리동거"가 가장 적합한 미래의 가족형태라고 보았다(Hoffmann-Nowotny, 1995; 서수경, 2002 재인용). 가족구성원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함께 사는 "분리동거" 형태의 가족은 개인주의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구성원들은 각자의 생활공간이 상당히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 자율적으로 규칙이 형성되는 생활 형태이고 관계양식이다.

한편 벡-게른스하임(Beck-Gernsheim, 1998; 2002 서수경 재인용)은 미래에는 특정유형의 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유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사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한 여러 유형이 병존하게 되는 가족유형의 다양화를 주된 특성으로 설명한다.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근대적 가족담론에 대한 비판은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에서 논의하는 가족의 특성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한국 가족담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특히 그러하다. 이분법적 사고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고, 일이나 국가를 가족과 분리하였으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담론에 적용된 근대지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공사 구분을 성별화하여 공적인 것은 남성의 영역이고 사적인 것은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을 정당화해 왔다고 지적한다(이재경, 2018). 가족은

<sup>2)</sup> 호프만-노보트니(Hoffmann-Nowotny, 1995; 서수경, 2002 재인용)가 분류한 미래에 존재할 가족유형은 ① 혼합적 가족형태: 부부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가족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성인 구성원들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은 하나의 게젤샤프트이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존적 관계측면에서는 가족은 게마인샤프트이다. 가족은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이지만 인생주기에 걸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 ② 독신: 모든 제도화된 것이 약화되고 개인주의화가 강화되면서 독신으로서의 생활은 포스트모던 가족유형에서 더욱 매력적인 대안형태가 될 것이다. ③ 시민가족 (또는 근대 핵가족): 현재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은 미래에도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된 가족형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④ 분리동거 형태: 개인주의화된 생활 유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각자의 생활공간이 상당히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자율적으로 규칙이 형성되는 생활형태의 특성을 가진다. 분리동거 형태는 우선 공간적으로 분리되는데, 예를 들면 한 건물에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을 갖거나 또는 각각 다른 건물에 자신들의 독자적 공간을 갖는 것이다. ⑤ 편부모 가족: 이혼이나 별거와는 상관없이 편부모 가족 형태는 양적인 면에서나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뚜렷이 증가할 것이며, 결손가족이 아닌 독립적인 가족형태로 인정되어 갈 것이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적 공간, 직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휴식처라는 인식은 가족과 사회를 상호 분리하여 불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장치요, 가정은 일을 잠시 보류해두는 곳, 그리고 사회에선 가족을 잠시 잊고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신화(myth)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함인희, 2010).

그래서 성(sex)과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구성된다는 후기산업사회의 통찰은 인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근대의 젠더이분법에 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한다(이재경 2018). 또한 가족의 영역을 사적영역으로 분류하여 가족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해 버리는 근대의 이분법적 논리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제도에 체계화되어 있지만, 향후 이러한 경직된 제도들은 제도들 간 모순을 일으키고 개인의 욕구와도 충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이재경, 2018).

#### (2)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화 논쟁

200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더 이상 근대의 틀 안에서 해석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 뚜렷해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이 한국 가족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이 한국 가족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이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에서 전망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유사한지에 관한 논쟁이다.

첫 번째 입장은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보여지는 규범적 불확실성이나 다양화는 "전통의 깨어짐" 현상이지 포스트모던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약화되는 것과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이 줄어든 것,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 사회전반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가족의 개인주의화를 초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하고 있다고 접근할 것은 아니며, "전통의 깨어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다(장현섭, 1995). 과거와는 다른 가족의 모습들 예를 들어 이혼, 재혼, 동성가족 등과 같은 가족형태의다양화는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생활이 다양하다는 사실만으로 포스트모더니즘 가족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장현섭, 1995).

이와는 달리 한국 가족의 변화는 "포스트모던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은 그동안한국 가족에서 진행되어 온 개인주의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탈제도화의 뚜렷한 경향은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담론을 한국 가족의 변화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서수경, 2002). 199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는 근대적 정상가족의 쇠퇴로 볼 수 있으며, 출산율이 하락하고, 출산지연, 베이비붐의 종결, 만혼·이혼·동거 및 사실혼 증가, 비혼 자녀출산 등과 같은 현상은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로서 한국 가족의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재경, 2018).

특히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발견되는 개인주의와 탈제도화는 미래 한국 가족의 주된 특성이 될 것으로 논의된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와 가족기능, 가족구성원의 감성구조에서 "가족의 개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가족의 이와 같은 개인주의화와 그에 수반하는 가족생활의 탈제도화는 서구의 포스트 모던 가족담론으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정문·장상희, 2001; 조은, 1999; 서수경, 2002 재인용).

한국 가족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근대 가족담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담론과 유사하다. 근대적 사고는 규범에 대한 보편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족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가족형태(핵가족)를 정상가족으로 보며, 젠더 이분법에 입각하여 부부간 성역할을 분리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구 구성과 가구형태의 다양화, 결혼관·출산관 및 자녀관의 변화, 초국적 가족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근대적 성별분업의 불안정성등과 같은 현상은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특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근대의 정상가족 규범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논의한다(이재경, 2018).

#### 2) 한국 가족의 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변화하는 한국 가족은 가족의 위기이고 해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재구조화이고 적응인가? 전자는 가족위기론자(가족 쇠퇴론자)의 관점이며, 후자는 가족 진보론자의 관점인데, 서구에서는 두 개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변화에 관해 논의되었다. 3) 가족의 변화에 대해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과 극단적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어 간다고 보는 입장은 전자에 속한다. 이에반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과 가부장제의 모순과 경제구조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가족은 진보한다고 입장은 가족진보론자이다(김미숙, 2006).

두 개의 대립되는 관점인 가족위기론과 가족재구조화론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다양화 혹은 재구조화 현상으로 수용한다(김미숙, 2006).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해 가족위기론은 이혼율, 저출산율, 재혼율 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안들을 가족의 변화로 주목하는 반면에, 가족재구조화론은 권위주의의 붕괴, 가족성원의 선택의 폭과 양의 증가,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성역할 평

<sup>3)</sup> 가족의 변화현상을 보는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관점은 대립적이다. 이혼 증가현상에 대해 가족 위기론자의 입장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보다는 개인의 만족추구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에, 가족진보론은 이혼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이혼에 대한 낙인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혼·재혼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대해 가족위기론자들은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반면, 가족진보론자들은 이혼은 오히려 개인에게 행복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자녀에게도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본다.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가족위기론자들은 가족의 내적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가족친화적 환경마련을 주장하는 반면에,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 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김미숙, 2006).

등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주기의 변화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주목한다. 또한 가족위기론은 전형적인 가족의 붕괴가 가족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본 반면, 가족재구 조화론은 가족의 변화는 사회변화로 인해 초래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본다. 나아가 가족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형태와 기능이 다양화된 것이며, 특히 이혼에 대해 가족해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구의 분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미숙, 2006). 한편가족의 형태에 대해 가족위기론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화된 핵가족을 건강가족으로 보는 반면에, 가족재구조화론은 건강가족의 개념을 부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수용한다. 가족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가족위기론은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기능회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가족재구조화론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족 외적인 사회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주장한다(김미숙, 2006).

이상에서 검토한 가족위기론과 가족재구조화론을 통합하는 관점도 있다. 통합적 관점에서는 가족의 변화로 인해 파생된 아동빈곤, 가족해체, 저출산, 이혼, 노인 부양부담 등과 같은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위기론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반해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외적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족재구조화의 입장을 수용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논의한다(김미숙, 2006).

#### 3) 한국 가족, 위기인가? 적응인가?의 논쟁

서선희(2017)는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해 가족의 위기로 보는 관점과 가족의 적응으로 보는 상반된 검토하면서 가족변화에 관한 위기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적응론자의 기본입장은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도 변화를 통해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위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사회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가족이 변화된 것이므로 가족의 위기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이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므로 사회와 인간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본다(서선희, 2017). 가족은 인류역사에서 오늘날에이르기까지 당시 사회와 환경에 적합하게 항상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부중심의 가족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분화하고 다양해지는 것은 개별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이라고 본다(서선희, 2017). 따라서 가족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가족이 적합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최근의 가족 변화는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성차별적인이분법적 사고를 내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2018).

이에 반해 위기론자의 입장은 다양화되고 있는 한국 가족을 가족의 위기로 본다. 일정한 형태의 가족(정상가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 형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가족을 붕괴 또는 해체시키는 일이며, 가족이 붕괴되는 것은 가족의 기 능약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와 인간에게 위기가 된다는 논리로 가족의 변화를 해석한다.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 구성의 중심축이었던 부부와 자녀라는 가족의 핵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가족기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환기시킨다(서선희, 2017). 가족의 핵이 붕괴되는 것은 재생산과 돌봄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가족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며, 가족의 핵을 약화시킴으로써가족의 기능약화를 초래한 가족의 변화는 위기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의 위기론을 지지하는 논의들 역시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가 가져 온 가족구성원의 자율성과 평등의 신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족이 담당해왔던 기능의 약화를 주시하면서 이를 가족변화에 의해 파생된 문제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가족위기론자들은 가족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가족은 양육과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보살핌을 제공하여 생명의 성장과 계승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부모와 자녀관계에 의한 보살핌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핵의 약화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족의 기능인 생명으로서의 가족과 도덕과 윤리의사회화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오늘날의 가족변화는 위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선희, 2017).

#### III.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특성

#### 1.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세대는 돌봄을 주는 역할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되고, 자녀들은 이제껏 자신에게 돌봄을 주었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로 점차 바뀌게 되는데, 이는 부모나 성인자녀 모두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다. 개개인들에게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시기이고, 사회제도들은 새로운 가족구조에 대한 정체감 확립을 양세대가 원만히 이루면서 일상적인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체계의 확립을 형성해야 하는 과업이 부과된다(김태현·임선영, 2004: 여가부, 2011: 317-318 재인용).

그런데 비독립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생애주기에서 전환되어야 할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지체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 등 독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부터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조사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최근 들어 부모에 의존하는 성인자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을 의미하는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젊은층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다 (강유진, 2016).<sup>4)</sup>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를 지속하는 것은 비규범적이라는 점에서 일탈적 현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독립 성인자녀를 부모에 의존하고 기생하는 캥거루족으로만 접근할 것인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세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청년층이 부모로부터의 독립, 나아가 독립된 가족을 꾸리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초래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율은 8.0%(2010년) → 9.2%(2015년)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 출산 및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 기피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비독립이 순수하게 자율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인자녀들이 많다면 사회는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성인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할 것이고, 사회적 규범 또한 성인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서구에서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 있는 비독립 성인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빨리 주목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부양을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는 한국의 가족문화에서는 형편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끝없는 지원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비독립 성인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문제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였다(강유진, 2016). 자녀가 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였고,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라는 신념이 한국사회에서는 강하다(강유진, 2016). 또한 한국의 가족문화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출발점을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비혼의 자녀가 부모슬하에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성미애 외, 2017).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비혼성인자녀와 부모 모두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혜지, 2021). 한국사회에서는 비혼 및 만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비독립 성인가구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문화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뒷바라지를 끝내지 못하는 부모세대와 그들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5년

<sup>4) &#</sup>x27;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었어도 캥거루처럼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른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일본에서 유행한 신조어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30대에 이르게 되어 부모의 기생하여 사는 독신자나 잠재적 독신자를 의미한다. 기생충(parasite)와 미혼(single)의 합성어로서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잠시 종사하며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메랑 키즈'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대학입학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독립하였으나 직업을 얻지 못하여 다시 부모에게로 되돌아 오는 젊은 세대를 이른다. '연어족'은 독립하였다가 주거비 지출 등 생활이 어려워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을 이른다. '키퍼스(kippers)족'은 영국에서 유행한 용어로서 부모의 퇴직연금에 의존해 사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조사에 의하면 34세 이하 대졸자의 51%가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 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16). 비혼 및 만혼으로 인한 독립기회 상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독립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인자녀들의 비독립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와 분리된 노후를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세대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살겠다는 응답은 60대는 5.3%(2015년 7.4%), 70대이상은 14.3%(2015년 21.0%)에지나지 않으며,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60대 84.0%(2015년 78.9%), 70대이상은 75.1%(2015년 68.3%)이다(여성가족부, 2021: 288: 여성가족부, 2016: 365).

2015년과 2020년 조사를 비교하면 60세 이상 노인세대들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 겠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자녀와 분리하여 혼자 혹은 배우자와 단둘이 살겠다는 응답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들의 욕구에 반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성인자녀들 역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닐 수 없다.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증가현상은 개별 가정으로서는 노후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노인부모들의 빈곤이 우려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는 결국 노인부양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다.

- < 노후생활(노후 희망동거인)에 대한 60대 의견>
  - 자녀와 함께: 7.4%%(2015년) → 5.3%(2020년)
  -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78.9%(2015년) → 84.0%(2020년)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생활양식이 부모-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논의한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의존적인 성인자녀의 존재가 중년기 혹은 노년기 부부의 삶에 부정적이며 심리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Auilino & Supple 1991; Mitchell & Gee 1996; Lee et al. 2011a; 강유진, 2016 재인용). 이에 반해 자녀와의 동거가 빈둥지 시기를 늦추고 중년기의 허전함을 채워준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이다(Byers et al. 2008; Lee et al. 2011b; 강유진, 2016 재인용).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동거이유로 서로에게 심적으로 의지가 된다는 것이 가장 컸다(김혜지, 2021). 경제적 교류와 같은 도구적 교류보다는 심적·감정적 교류와 같은 정서적 교류가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부모-자녀 간 간섭·갈등 측면에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섭에 대해 자녀가 인지하는 수준이 부모가 인지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았으나, 일상생활 갈등은 성인자녀와 부모모두 가끔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혜지, 2021).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정서적 교류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 족부가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상호지원 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하였다.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상호지원의 차이에 관한 <표 3-1>에 의하면,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도움의 주된 내용은 정서적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비하여 부모-성인자녀 상호지원은 더 많으며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다. 특히 동거하는비독립 성인자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202). 부모-자녀관계의 교환이 공평성을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 지원 혹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교환은 어떤 형태로든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독립 성인자녀가 부모에게는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 상호지원의 불균형 정도가 동거하는 성인자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부모가 비동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내용은 경제적 지원와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한 자녀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부모-성인자녀와의 상호도움(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부모관점)

		성인자	녀에게	성인자녀로부터		
		도움 주고있음	도움 주지않음	도움 받고있음	도움 받지않음	
경제적 도움	동거	41.7	58.3	35.8	64.2	
(생활비, <del>용돈</del> 등)	비동거	18.0	82.0	31.3	68.7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동거	63.0	37.0	45.8	54.2	
	비동거	10.7	89.3	12.1	88.0	
기족원 돌봄	동거	26.2	73.8	19.1	81.0	
(손자녀돌봄, 병간호 등)	비동거	11.4	88.6	7.0	93.0	
정서적 지원	동거	74.1	25.9	63.8	36.3	
	비동거	54.8	45.3	54.3	45.7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 재구성)

미혼성인자녀와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한 강유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도 성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구의 연구들 (Flanagan et al. 1993; White & Rogers 1997; 강유진, 2016 재인용)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비동거 성인자녀들에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국내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표 3-2> 참조),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와의 친밀성에서 더 부정적이다(여성가족부, 2021: 210). 자녀와의 친밀성에서도 동거

하는 경우가 더 부정적이다.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와의 친밀감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면에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2> 부모-성인자녀와의 친밀감(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부모관점)

	부정적	보통이다	긍정적	전체
성인자녀와 동거	7.9	36.2	55.9	100.0
성인자녀와 비동거	8.5	34.7	56.8	100.0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1: 210 재구성)

35세 이상의 성인자녀를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경제적 의존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거' 의존형'의 비독립 성인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부정적이어서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세대 역시'동거·의존형' 자녀가 있는 경우에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성미애 외, 2017).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동거·의존형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고갈되는 노년기까지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된다면, 가족 간의 갈등과경제적 문제를 겪는 가족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의 문제를 가족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미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간에 발생한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구와 국내 모두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더 많은 편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상 상호교환이 균형을 이루지 않더라도 가능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강유진, 2017). 친밀감이 결여된 부모와 비독립 성인자녀 관계는 거주만 함께 할뿐 상호작용은 없는 단순 동거인 형태의 가족관계인 분리동거형의가족생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관계에서는 상호 친밀감은 낮고소통은 원만하지 않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 많을 수 있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기 및 성인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생애주기의 발달과업 측면에서 비규범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청년문제 및 비혼 등과 같은 가족가치관 변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인이 된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개별 가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독립 성인자녀의 경우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지원이 불균형적으로 부모에게 쏠려있으며, 부모자녀관계의친밀성 또한 낮아서, 성인자녀의 비독립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가치관이 팽

배한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부모세대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인부모의 자녀부양이 장기화된다면 이로 인해 노인세대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이며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가예측된다. 이에 대응하여 성인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방향과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 2. 사회변화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

한국 가족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중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가 치관의 변화양상은 상당히 뚜렷하다. 최근 들어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발생에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 쟁점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 1) 부의 불평등 심화

"자녀의 독립이 어려워진 사회, 저소득 가정의 젊은 세대들은 독립이 가능할 것인가?"

최근 부동산문제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떠들썩했다. 그 와중에서 부유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서둘러 부동산을 증여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일정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아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서민가정 청년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임대까지도 어려워진 상황이니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의 처지에는 이처럼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계층에 따라 청년들의 경험은 다르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 2) 청년실업

"경제적 독립 없이 주거독립은 가능할까?"

청년인구 10명 중 한명이 실업상태이다. 2020년 청년으로 분류되는 15세-29세의 청년실업율은 9.0%이다(e-나라지표, 2021). 물론 9.0%에는 학업 중이거나 학업을 연장하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에 비혼까지 겹친다면, 무직의 비혼자녀는 성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녀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독립할 여건이 안 되는 자녀를 강제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은퇴한 부모의 연금에 의존하여 사는자녀들, 소위 캥거루족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상당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부양할 능

력이 있다면 자녀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때까지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부모세대 역시 실업, 조기은퇴, 사업장 폐쇄 등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이 된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은 부모-성인자녀 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 3) 개인화된 사회

"개별성, 다양성,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세대와 가족의 집단성을 강조하는 부모세대 간의 마찰"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으니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세대의 가치와 기대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그만큼 소통이 없었던 탓에 소통부재로 갈등하였다면, 지금은 많은 시간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교류가 더 원만하지 않다. 함께 있으나 소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있어서 마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일로서 개인의 혼인여부에 대한 결정에 사회가 압박을 줄 일은 아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할 것인 지도 개인의 권리이다. 다만 그러한 선택이 혼인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독립을 할수 없는 여건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행위라면 사회제도는 달리 반응해야 한다. 자신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과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존속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4) 기술발달과 세대 간 격차

"기술발달의 속도에 비례하는 세대 간의 간격과 불통"

한국 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측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와 가족의 기능, 감성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가족의 개인화가 더욱 가속되며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단절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서수경, 2002). 또한 가족생활에서 독자성과 자율적 활동을 인정하고 개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므로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개인의 생활을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제도가 되지 못할 것으로 논의된다.

오늘날 놀라운 속도의 기술발달 및 정보통신 발달은 세대 간 격차의 가장 큰 영역일 것이다. 아날로그 세대로 불리는 부모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 기술에 적응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상생활 형태, 주된 관심사, 사건에 대한 대응양식 등 모든 면

에서 세대 간 차이가 역력하다. 편리한 기기들이 부모세대에는 오히려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며, 자녀들에게는 인터넷 공간과 컴퓨터와 모바일이 소통 공간이 되었다. 결과 적으로 가족과 소통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제 부모와 자녀는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교감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방에서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자녀를 이해할 수없으며, 자녀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가 답답하다.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만큼 세대 간 간격은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다.

#### IV. 한국 가족의 전망과 대응

#### 1. 한국 가족의 변화 전망

한국 가족은 구조적으로 분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개인화의 경향이 뚜렷하고,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가족의기능은 이미 약화된 상태이어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가족관계에서는 개인화와 맞물려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가족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한국 가족 변화의 주된 특성으로 "1인 가구 및 2인 이하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비혼독신·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지고 있으며, 가사 분담 등 가족 내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5.31. 보도자료). 가족의 형태와 구조,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 폭넓은 변화가 한국 가족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족의 변화 이후에 오는 가족 역시 가족이다. 다만 달라진 가족의 모습과 변화된 기능과 특성으로 존재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다. 단일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족은 없는 것이 한국 가족의 현재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족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근대적인 이분법적 젠더질서는 성·젠더·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모성의 신화를 깨는 대중의 변화된 인식은 대중문화에서도 표현되고 있다.5) 그러나 가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은 지체되어 있다(이재경,

<sup>5)</sup> 가족의 변화 가운데에는 모성담론의 신화가 문화 속에서 깨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모성담론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핵가족의 이데올로기이다. "완벽한 엄마, 강한 엄마, 모성은 완벽함이라는 사회적 믿음, 모성의 신비화(엄마와 자녀는 교통한다)"와 같은 모성에 대한 과대포장과 기대감은 여성들로 하여금 완벽한 엄마가 되라고 압박하면서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엄마책임으로 전가시켜왔다. 그러나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세상에서 엄마로 살아가기 버거웠던 여성들은 살림·육아·직장(일) 뭐든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는 스스로에 대해 나쁜 엄마라는 자책감을 가지는 것은 세상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윤옥희, 2019). 최근의 대중문화는 말한다.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원래 없다." 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기반이 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모성담론을 과감하게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2018). 한국 가족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과도기적 현상을 관련연구와 공식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상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한국 가족의 미래 를 이슈별로 전망하고, 가족구성원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족기능을 위한 사 회적 대응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정의도, 함께 사는 것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가족은 혈연인가? 정서적 결합인가? 한국 가족은 가족의 형태 및 범위, 성역할, 결혼제도, 출산행위, 친밀성, 가족규범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정의와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은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 유연화(increasing flexibility)되고 있다(이재경, 2018).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에서 친밀감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정서적 교류가차지하는 위치는 컸다. 가족관 및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족변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가족을 혈연에 기반하고 있는 법적관계,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친밀감이 있으면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동거, 즉 함께 사는 것이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달라졌다. 웹과 인터넷의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화되는 메타버스(meta verse) 시대, 직장과주거의 공간적 경계가 애매해진 '직주모호성'과 같은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오늘날 '네트워크형' 가족처럼 가족 밖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삶의 양식이 증가하는 현상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된 개념이 가정생활및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공간에 있으나 서로 교류하지 않는 '분리동거형 가족'형태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는 '네트워크형' 가족의 형태가 병존하는 현상을 상당수의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관계로 변화하고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물리적 동거와 정서적 동거가 병존하면서 정서적 동거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물리적으로 한 주거공간에서 얼굴을 맞댄 교류가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사회가 되었다. 주거공간을 함께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거형 분리가족"은 가족 밖의 사람들과는 주거공간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분리형 동거가족(네트워크형 가족)"의 형태로 가족을 형성해 가기도 할 것이다.

둘째, 개인화된 가족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가족가치가 개인중심의 가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개인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개인중심가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유효하다. 가족영역에서는 결혼의 제도적 지위는 약해지고, 둘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보다는 독신가구가 증가하며, 집합으로서의 가족구성원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은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김영란, 2012).

이제 가족의 집단성, 한국의 집단주의적 가족주의와 가족문화는 개인적 가족주의, 개인화된 가족문화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 개인화된 가족주의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unit)로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의 의미는 집합으로서는 약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가족관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 구적 관계가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될 것이며,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란, 2012).

따라서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맺어진 책임, 의무, 도리 등과 같은 규범보다는 친밀성이 강조될 것이므로 부부관계에서 성(sex)의 의미가 커지고, 부모-자녀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게 된다(서수경, 2002). 또한 가족제도는 개인의 생활을 강제하거나 구속하지 못하는데 가정생활에서도 개인의 독자성과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가족관은 상호구속적인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보다 독신이나 동거, 결혼 후에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선호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개인화는 우리의 생활과 생각 전반에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미래 가족의 주된 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다양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재경, 2018). 이런 면에서 개인화 및 개별화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사회제도와 정책은 달라지고 있는 가족의 특성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주택과 도시계획, 복지정책, 교통정책, 가족정책 등은 개인화된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생활을 반영하여 탈표준화 및 유연성과 다양성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이재경, 2018).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 개념에 대한 경계나 범위를 완화하여 개인의 가치와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원칙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의 다양성은 커져갈 것이다.

가족은 다양화되어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다. 전형적인 가족의 유형도 사라졌고, 정상가족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해묵은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비정 상으로 보였던 가족의 유형들(비혼독신, 비혼동거, 비혼출산, 무자녀, 다문화가족, 비혈연가족 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식도 바뀌고 있다.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의 수용도가 높은 것을 볼 때, 가족의 다양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족의 형성에 결혼과 비결혼의 경계가 완화된 것은 결혼과 가족의 탈제도화, 탈법제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 역시 가족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여 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양육권, 상속권 등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서구 의 추세를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정생활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1세기에는 근대 핵가족이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Furstenberg, 2014; 이재경, 2018 재인용). 이제 정형화, 표준화된 가족은 없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대한 정상가족 논의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정책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하거나 배제되지 않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1: 348). 또한 가족형성에 대한 개인의 선 택권이 존중받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있다.

1인 가구, 비혼, 무자녀 부부 증가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세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 이혼 후 혼자된 사람들,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초래된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를 비롯하여 가구의 소규모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 + 자녀가구(28.8%), 한부모 + 자녀(10.2%)는 2045년은 각각 16.8%, 9.5%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세대 가구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으로 부부단독가구(16.6%)와 1인 가구(30.3%)는 2045년에 각각 21.4%와 37.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제 사회제도 및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1인 가구과 가구원수의 감소가 정책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구성의 소규모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간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소득수준별로 서로 상이한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연령에 따른 욕구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지원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안정화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1인가구의 유형별, 연령대, 그리고 1인 가구 형성 이유별로지원욕구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중장년·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 333 & 349).

다섯째, 돌봄의 위기는 돌봄의 상품화로 대체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보살핌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해 온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살핌이 필요하다. 가족이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생명 유지와 성장이 가능하도록하는 돌봄의 역할이다(서선희, 2017). 예외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아이의 생명과성장을 위한 돌봄의 가장 적합한 양육자는 부모이다.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통해형성된 아이의 인격은 건강하게 자라는 기본적 조건이며, 이때 형성된 인격은 평생의인격이 된다. 생명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키워나가는 일은 생명을 낳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가족의 핵심적 역할이며, 가족의 원초적 의미이기도 하다(서선희, 2017).

개인화가 특징인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개인의 욕망과 근대적 가족제도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재경, 2018). 가족행위를 보편적으로 규제해 왔던 표준화된 규범, 예컨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인생을 강조하던 과거의 제도와 규범은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제도와 개인의 욕구, 그리고 규범과 개인의 가치는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변화하고 있는 개인의 생애와 가족은 기존 제도에 저항이 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요구(demands)와 개인의 욕구 (needs)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이재경, 2018). 이러한 개인주의 가치관은 가족의 보호기능(부모부양, 자녀양육)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화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의존형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이미정, 2001).

가족관계에서 개인화는 돌봄 노동을 상품으로 구매하거나 공공의 지원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돌봄 서비스는 시장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김영란, 2012; 김혜영, 2010). 돌봄 영역의 상품화 추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이지만 돌봄의 공백을 상품화로 대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족이 전담하던 돌봄(양육과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는 마땅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성가족부, 2021: 349), 가족의 돌봄 기능이 가지는 긍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가치도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의 중대 사안이다.

무자녀 가족에 대한 가족가치관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 생식이나 재생산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Blackstone, 2019: 333).

그러나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 0.84명(2020년)이고, 한해 내내 태어난 새 생명은 30만 명도 안 된다. 이대로 간다면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일은 개별 가정의 역할과 책임에 의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므로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하거나개별 가정의 부담을 담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출산 기능은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이다. 가족의 근원적인 기능이기도하다. 한국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육, 양육, 교육정책의 대변혁이 무엇보다중요한 이유이다.

일곱째, 평등한 가족문화,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보인다.

가부장적 위계질서,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평등한 가족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공식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났다. 가족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구 성원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가치, 태도, 행위들의 총체인 가족문화는 가족 구성 원들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의 소통과 교류과정 은 가족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문화의 변화를 일으킨 동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성별 역할 분리에 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약화시켰다. 현재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데(2015년 기준 51%), 취업증가의 배경에는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안정성 약화, 소비의 확대, 주거비 상승과 같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이재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은 부부관계의 평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가사분담을 포함하여 가족 내 성 평등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의 사소통과 관계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평등한 가정생활 을 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평등한 가족문화는 정착되 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 수행은 여성의 부담이 크고,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가정에서 남성들의 역할변화 수준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에 활발히 참여해야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 모두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함인희, 2010).

한편, 부모-자녀 관계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 및 성인 자녀 모두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를 위한 가족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20: 350). 이와 함께 남성들의 변화도 필요한데, 변화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역할모델 정립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가부장적 자세와 성 역할 분화에 입각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남성들도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 아버지들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일종의 문화적 압력으로 느껴질 만큼의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함인희, 2010). 나아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쉽사리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성인자녀의 지체된 독립으로 부모의 부담도 그만큼 연장될 것이다.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사회상황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적지 않으며,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분리를 달성하지 못한 성인자녀는 생애주기의 발달과업에서 비규범적이며 일탈적 현상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상호지원이 불균형적으로 부모에게 쏠려있어서 부모세대의 부담이 크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역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고, 부모자녀관계의 질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에 비하여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실이반영되어 비독립 성인자녀들에 대해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 부정적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강유진, 201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비혼, 만혼, 청년일업,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 등과 같은 현상과 맞물리면서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은 늘어갈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들이 모두 기생하는 캥거루족은 분명 아닐 것이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모-자녀관계이고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문제로의 연계가 예측되는 까닭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 부모에 의한 자녀부양이 장기화될수록 부모세대는 빈곤한 노후생활을 하게 되고 비독립 성인자녀들은 삶의 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청년 실업 및 고용불안이 계속된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으로 부모세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

정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가족의 해체로 귀결되기도 하는 부부 갈등과는 갈등의 전개 과정이나 대응방식에서 사뭇 다르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단절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연을 끊을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간 갈등은 개별 가정들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족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틀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은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성인자녀들이 별도의 독립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젊은 층이 독립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주거비 부담에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상황의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한겨레신문, 2017.2.16.). 이 때문에 졸업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주거 및 경제적 의존 생활을 하게 되는 소위, 캥거루족이나면어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겹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인자녀의 비독립으로 인한 부모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및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비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부담스러워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일자리와 주거지원 정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지원도 모색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요인은 줄이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는 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방향과 부모와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이원적인접근이 적절할 것이다.

열 번째, 가족 기능의 사회화 확대에 대해 더 생각할 일이 있다.

가족 기능을 사회가 지원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논의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현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대, 이혼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이제 사회적 차원의 가족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나아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 범위를 확장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에 제기되었다(이미정, 2001).

가족의 변화는 사회현상이므로 가치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일이다. 특히 아동의 불안정한 양육, 빈곤한 한부모 가정의 문제, 저출산이 주는 사회적 위기, 노인 부양부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현명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가족 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일이다. 가족의 기능은 재생산기능과 경제적 지지, 양육과 교육 및 사회화, 노인부양을 들 수 있다(김미숙, 2006). 이러한 가족 기능 중에 재생산, 자녀양육 및 교육의 기능, 돌봄의 기능은 사회제도(가족기능의 사회화)나 시장(상품화)이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관계에 의한 보살핌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가장 적합할 수 있으며 가족의 근본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가족의 생명과 도덕·윤리의 사회화에 대한 가족기능이와해되고 있다면 지금의 가족 변화가 초래한 가족의 문제는 위기일 수 있다(서선희, 2017). 이런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가족이 맡아왔던 기능을 경계 없이 사회로 대체하거나 상품화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가족이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아야한다.

한편 개인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성 평등 의식은 증가하였지만 과도기적 현상이 존재한다. 성역할의 구분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들은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로서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위까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함인희, 2001). 이에 따라 생계책임자가 아니면서 가부장적인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남편들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들의 관계는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조은, 1999, 함인희, 2001). 예를 들어 이혼 또는 재혼 가족 등 가족의 다양화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 현상도 주시해야한다는 점이다. 여성 한부모 가구는 이혼 전보다 소득이 1/3에서 1/2까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서선희, 2017).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제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족 변화로인하여 오히려 취약해진 인구가 있다면(예를 들어, 빈곤한 여성 한부모 가정, 가사와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소외된 1인 노인, 독립하지 못하는 빈곤한 가정의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관련 법과 제도는 이와 같은 취약한 인구를 배려하는 노력이필요하다.

### 2. 맺음말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도 가족이 사회 존속의 기본단위이고 개인과 사회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가족의 변화

는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발전함에 따라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체된 영역이 있고, 가족 변화로 파생된 역기능적인 문제도 있으며, 가족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에는 평등한 가족관계와 같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 있고, 저출산, 비혼, 성인자녀의 비독립과 같이 우려되는 사안도 있으며, 돌봄과 부양처럼 가족과 사회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한 일도 있다. 변화된 가족의 현실과 변화추세를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가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 참고문헌 >

- 강유진, 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관련요인: 세대 간 지원교환, 가족부양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27(3): 387-403.
- 김미숙, 2006, "한국 가족 어디까지 왔나?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보건복지 포럼」, 제115권: 5-19.
- 김영란, 2012, "미리 가보는 2030년 한국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젠더리 뷰」, 제27: 38-44.
- 김정우, 2006,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신앙윤리", 「카톨릭사상」, 제34호: 5-56.
- 김혜영, 2010, 한국 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젠더리뷰」, 2010 여름호: 20-28.
- 김혜지, 2021, 「비혼자녀와 부모의 동거: 관계특성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선희, 2017. "적응인가, 위기인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21권(4): 17-33.
- 서수경, 2002,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 40(5): 95-108,
- 성미애·최연실·최새은·이재림, 2017,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139-158.
- 여성가족부, 2011, 「2010년가족실태조사」, 조희금 외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2015년가족실태조사」, 장혜경 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가족실태조사」, 김영란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윤소영·조성은·정지영·정영금·차성란, 2021, 「가족문화 변화를 읽다」, 신정.
- 윤옥희, 2019, 「하마터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뻔했다」, 메이트북스.
- 이동원 외 역, 1999, 「변화하는 가족」(엘킨드 저, --- 원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미정, 2001,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한국사회과학」, 제23(2): 89-122, 2001.
- 이재경, 2018, "기로에 선 한국 가족: 근대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25-41.
- 장현섭, 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431-473.
- 조정문, 장상희, 2001, 「가족사화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조 은, 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1999 년 봄호 45-53.
- 함인희, 2010,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젠더리뷰」, 2010

여름호: 12-19.

Blackstone, A, 2019, Childfree by Choice (신소희 역, 우리가 선택한 가족, 문학동네, 2021). Gittins, D., 1985,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안호용·김흥주·배선희 역, 1997, 「가족은 없다: 가족이 데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 <인터넷 자료>

여성가족부, 2021.5.30.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자료검색일 2021.9.2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국가통계포털 1인가구 추계 (자료검색일 2021.9.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e-나라지표(자료검색일 2021.9.25.)

https://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한겨레신문(2017,2.16.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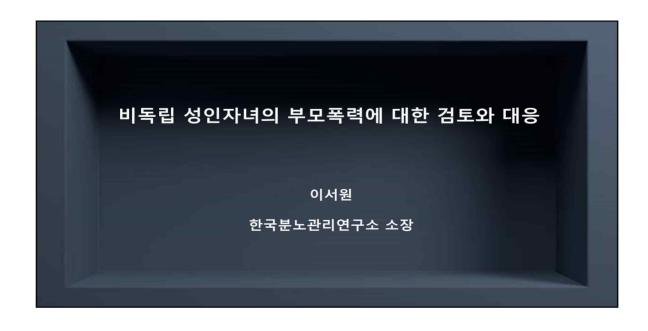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905.html

### |주제발표|

###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이 서 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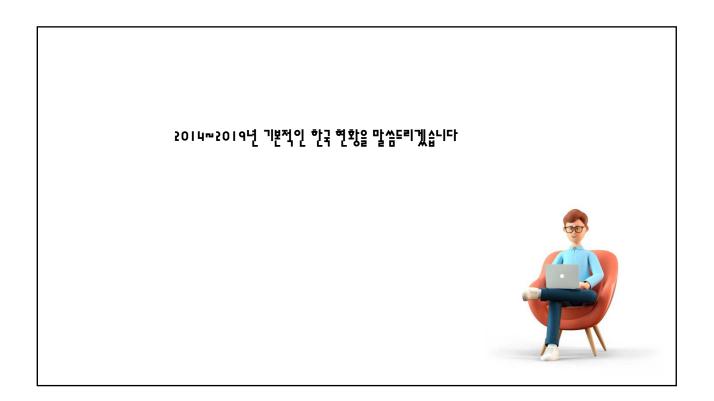


### 어떤 순서로 발표하실 거죠?



### 1.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현황 2.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원인 3.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대응

# 현황





[표2] 동거형	태별 학대율				
동거형태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녀동거	26.7	31.0	33.2	33.5	30.3
부부동거	21.2	23.9	26.3	29.1	31.8
노인단독	34.5	26.6	21.8	19.3	19.8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	관, 노인학대현황보고	고소, 2019		



폭력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정서폭력 37.9 40.1 42.0 42.9 42.1
정서폭력 37.9 40.1 42.0 42.9 42.1
신체폭력 25.9 31.3 36.4 37.3 38.1
경제폭력 8.8 7.2 5.6 4.7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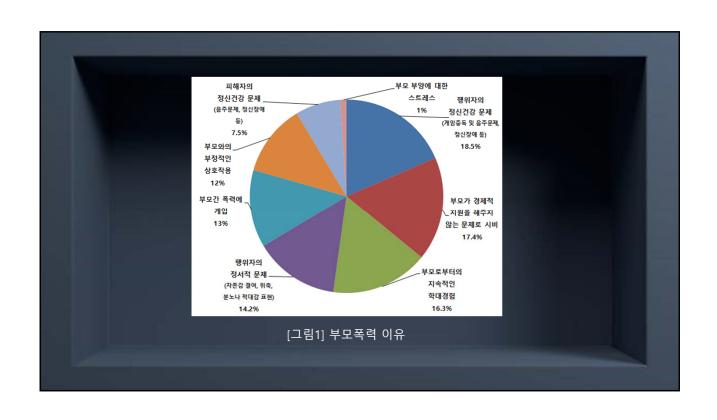
















## 상담사례: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 서른을 훌쩍 넘겼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밤새 게임만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억울하게 선생님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나갔습니다. 몇 십 만원에 합의한 것 이외에 부모나 선생님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지독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집에서는 도박에 정신이 팔린 아버지가 이를 말리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매

질을 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와 대판 싸워 주먹이 오갔습니

다. 늘 아들에게 남편 원망만 하던 엄마는 되려 그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 상담사례: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 대학진학에 실패한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고참에게 맞아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모는 병원에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 아들은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사사건건 잔소리를 퍼붓고 간섭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방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자기 방 물건을 치우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폭력이 시작된 것은 엄마가 아들 방 대청소를 한다고 이것 저것 다 버린 직후였습니다. 이후로 이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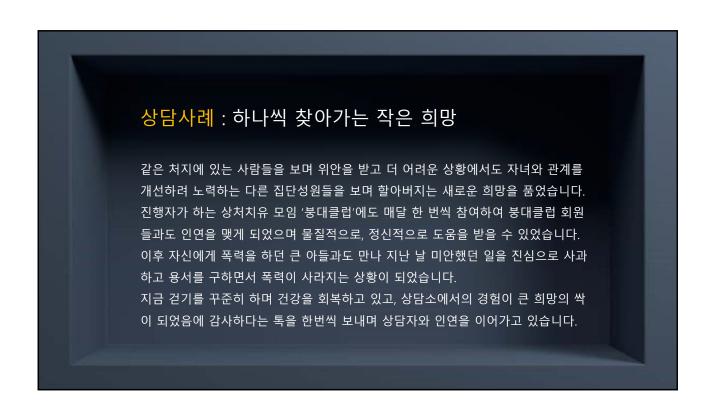




# 상담사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행 때리던 맏아들을 피해 둘째 아들네로 들어온 70대 부부는 손주들을 돌봐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일을 나간 후 어린 두 손주를 보던 할 머니가 바느질을 하려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아파트 앞 가게에 반찬 거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심심해진 다섯 살 오빠는 촛불이 신기 해 이리저리 만지다 초를 떨어뜨렸고, 그만 거실 카펫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거실로 번져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이 전소되었고, 다섯 살 난 아이는 놀라 문을 열고 피했지만 어린 동생은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

### 상담사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행 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엎친데 덮 친 격으로 병원으로 차를 몰던 할아버지는 뒤에서 오던 차에 받혀 허리를 다치고 말 았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무섭고 미안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국 을 떠돌며 근근이 할머니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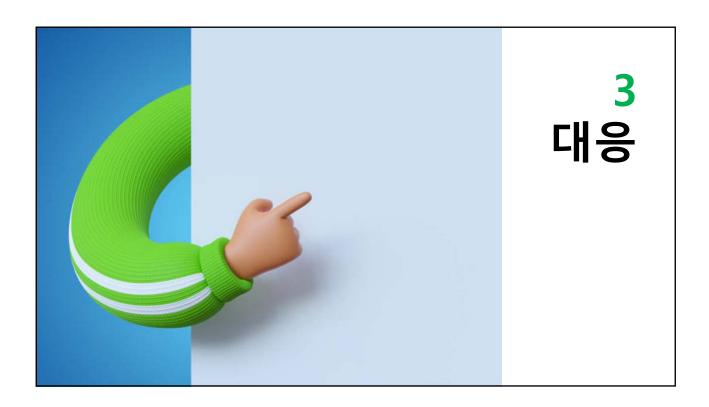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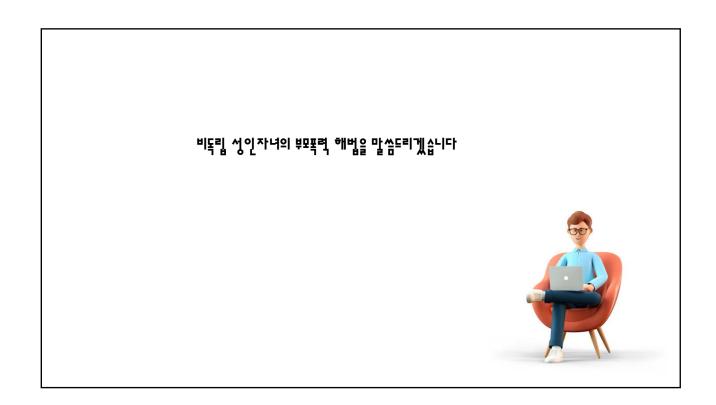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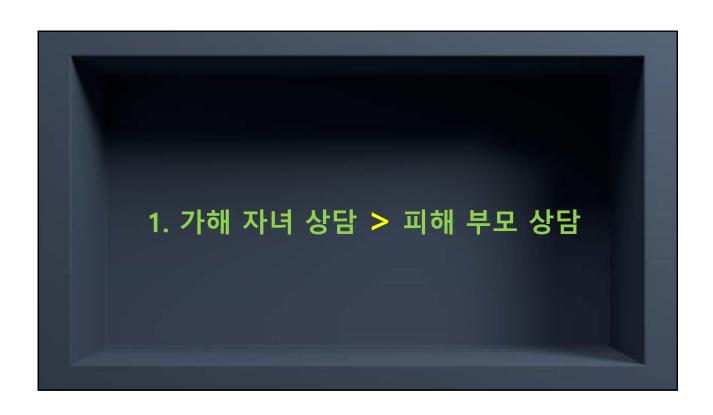


# 상담사례: 대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아빠 아버지와 사사건건 부딪치고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던 아들이 상담에 참여한후 상담자와 참석한 집단성원들에게 자신의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사실 자신과 아버지 관계에 답은 정해져 있다며, 자신이 참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그렇다면 자신이 왜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참을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면, 참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사례: 대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아빠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초등학생과 싸워서 이기면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들 또한 아버지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세계 챔피언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상담자가 조언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였고, 이후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세계챔 피언 혹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의 극적인 변화에 아버지도 더 이상 아들을 함부로 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부자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 |토론발표|

#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장 희 숙(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기 원고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국 가족의 주된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과 사회적 대응 제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정책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주신 신연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몇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 1. 가족의 기능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현상과 개인주의 확산은 가족기능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노부모 돌봄과 부양은 많은 가정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입 니다. 점차 개인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 의존 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이는 공적 부양 서비스가 충분히 뒷받침해주 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 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부양 부 담이 줄어들고 있으나, 낮은 보장 수준이나 한국 고령자 빈곤율을 고려할 때 자녀의 경제적 부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돌보는 신체적, 도구적 수발은 감소하고 경제적 부양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진미정 외, 2020)에 의하면, 가족이 돌봄을 통해 사 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가족의 공 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수행하 는 돌봄노동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직접 돌볼 것인지 외부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이 공적 부양 확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 시스템을 고안해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써,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지역 공동체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접근방식입니다.

노후 부양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석재은, 2009), 노인 돌봄

책임 주체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 집단은 가족책임, 개인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응답했지만 45-64세 비고령 집단에서는 개인, 국가, 가족책임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부모-자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이원준, 2012)를 살펴보면, 성장 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부모-성인자녀 간의 친밀성, 정서적 애착을 매개로 노부모 수발 헌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갈등을 줄이고 가족부양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강조했던 역할수행을 친밀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원준 (2012)은 자율성과 친밀성이 균형을 이루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가족 대상프로그램에 노부모 부양, 노부모-자녀 관계 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인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자기돌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주돌봄자가배우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들 역시 건강이 취약해지는중·고령층에 해당합니다. 문헌에서는 가족 내 주보호자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 신체건강 저하와 높은 수준의 우울을 들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나타납니다(정재훈, 2013). 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돌봄 제공자들은 시간 부족, 소진등으로 자기를 돌보는 활동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은 주보호자의 자기돌봄 활동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들의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돌봄에 관한 심리사회적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 건강, 심리·정서적 안녕, 사회적지지, 영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돌봄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에대한 정보와 연계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 2. 부모와 비독립 성인자녀

독립을 늦추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적습니다. 더욱이 대상 가구가 특정소득계층에 치우쳐 있는 것 같지 않아 지역사회기관과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보입니다.

실업 증가, 주거 마련 비용의 상승, 고용 불안정 등 청년세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연시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의무로 받아들이는 부모, 자녀의 태도와 가치관, 한국 문화도 두 세대의 동거와 자녀

의 의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자녀 부양과 장기간 동거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성미애 외, 2017), 부모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하며,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독립 성인자녀의 증가나 청년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일정부분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비혼, 만혼,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 사회,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게 됩니다. 성인기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 요소들을 보면, 결국일자리 창출, 고용과 주거 안정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관련 정책을 시도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정책 및 제도의 주된 허점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은 분양면적, 비싼 임차료,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개인의 웰빙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을 만들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취업 연계, 취업인턴제 등도 개인의 역량과 욕구에 따라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할 자질을 갖추어도 이를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배경, 특성, 목표에서 차이가 클 것입니다. 기존에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별 능력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김소형과 김경호의 연구(2018)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기극복의 힘을 얻게 된 저소득 가정 청년의 경험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빈곤층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로 접하면서 빈곤 정책의 주 대상자로 인식하게 만든 점은 지역사회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외에부모, 비독립 성인자녀 세대가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은 세대 간 간격을 좁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대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는 돌봄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했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와 변화는 '돌봄의 사회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돌봄의 책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중 어디에 얼마만큼 두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탈가족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가족 돌봄의 주요 특성인 관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김승권 외, 2013). 하나의 대안으로 김승권 등 (2013)이 제안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국가는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꾀하고, 가족은 가족 내 젠더, 세대 관계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

면서 정서 중심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가족 돌봄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가족 돌봄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 김소형, 김경호(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5-37.
- 김승권, 김연우, 이성용, 윤흥식, 진미정(2013). "가족변화 대응 국가·사회발전 기본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39-163.
- 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2017).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35(1), 139-158.
- 이원준(2012). "중년부부가 지각하는 성장 시 부모의 헌신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간의 친밀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77-109.
- 정재훈(2013). "치매노인과 일반노인 부양자의 스트레스 및 심리상태".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 52(4), 51-65.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토론발표|

#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에 대한 토론

정 윤 경(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오늘 주제 발표에서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하여 신연희 교수님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서원 소장님은 임상적 맥락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가정폭력의 연구나 임상 영역 모두에서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아직은 명확한 실태와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앞으로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촉진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서원 소장님의 발표문에 대해 토론자로서 느낀 점과 제안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I. 느낀 점

첫째, 발표자가 인용하신 데이터에서 대략의 고위험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인이지만 미혼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때 그 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부모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 통계가 지난 5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된 총 5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사례수가 적고 가정폭력으로 사건 처리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것이어서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임상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임상에서 드러난 것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이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닌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누적된 부정적 관계와 감정적 대립이 배 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 니다. 저 역시 가정폭력 상담을 해오면서 사례들을 통해 느껴온 것으로서 발표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0주년 심포지엄에서 '청 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소년들에 대해 어떠한 상담이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심포지엄 주 제 속의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와 함께 무거운 책 임을 느꼈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나 상담만으로 폭력이 근절될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개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피해자는 연령대가 50대에서 노년기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65세이상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판정이 나더라도 피해자 보호 시설 연계,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행위자 상담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와 고소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 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개입을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재학대 사례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통계에서는 2019년 대비 약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이 통계가 가족에 의한 학대인지는 구별 하여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학대가 계속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학대 발생장소 중 가정 내 발생이 88%(2020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학대피해자와 행위가가 동거 중인 경우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22.6% 증가(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 내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예방차원 및 사후개입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Ⅱ. 제안

첫째,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관련 조사 내용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폭력과 달리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는 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자녀를 둔 부모 연령층에 대한 폭력실태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보고서'의 세 개 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조사는 주체가 여성가 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조사 방법과 대상, 조사 내용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 결과를 서로 보완하여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개의 조사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습니다.

각 조사의 특징을 한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 내 폭력 조사가 목적으로 만 65세 미만에 대한 조사와 65세 이상의 조사를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조사 내용은 배우자폭력에 초점을 두어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 분석하고 있으나 그 외 가족원 간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 실태와 가해자가 누구 인지만 조사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간략하게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과 주가해자, 주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도움요청 여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만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실태는 65세 미만 조사에서는 가족원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으나 그 이 상 가해자에 대한 정보나 특성을 알 수 없고, 65세 이상 조사에서는 가족원폭력의 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 외에 세부적 특성은 알 수 없습니다.

<표 1>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6	노인실태조사7)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기	3년 -최근 2019년	3년 -최근 2020년	1년 -최근 2020년
대상	-전국 포본추출방법에 따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분리 조사 -2019년 65세 미만 7,969명, 65세 이상 1,091명조사	-전국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2020년 10,097명 조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총34개소)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 -연령 제한은 없으나 2018년 자료부터는 65세 이상만 있음. -2020년 16,973 사례
부모폭력 관련 내용	-65세미만: 가족원 폭력, 가해자 -65세이상: 배우자 제외한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 해, 주가해자 및 주가해자 와 동거여부,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요청 하지 않 은 이유	-타인에 의한 폭력 경험과 가해자와의 관계	-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재학대 건수 -학대발생장소,학대유형, 가구형태 -행위자와 피해 노인과의 관계, 피해노인 연령대, 행 위자 연령대
장점	-전국 성인 대상으로 가족 원에 의한 학대 발생률과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음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발생률과 가해 자를 파악할 수 있음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폭력 관련된 질적인 조사 가 가능함
한계점	-가해자의 연령대, 결혼여 부, 갈등 원인에 대한 조 사 없음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에 자녀의 연령/동거여부/결 혼여부 등 자세한 특성 조 사 없음	-신고되지 않은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

<sup>6)</sup> 가정폭력실태조사(2019)에서 ① 65세 미만 응답자 중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율은 4.7%로 나타남. ② 65세 이상 응답자 중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율은 3.8%로 나타남. 주가해자는 자녀가 81.7%, 주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24.6%로 나타남.

<sup>7) 「</sup>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는 '행위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노인에게 행해지는 모든 학대 행위'를 말하고, '노인학대관련법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를 말함.. 이 정의에 따른 노인실태조사(2020)에서 노인학대 피해율은 신체 1.3%, 성 1.1%, 정서 6.6%, 경제 0.4%, 신체적 방임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로서 그 중 노인학대 피해조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문항에서는 학대 유형별로 타인으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과 함께 주가해자를 적도록 하여 가해자가 가족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제외하고 다른 특성은 알 수 없고, 65세 미만인 경우는 조사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학대현황보고서'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한 자료로서 노인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이어서 65세 미만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는 둘 다 통계청 승인 조사로서 국가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폭력 피해 여부 외에 폭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상이하여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에는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조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효율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조사에서 집중하여 폭력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본래 조사 목적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피해부모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설명한 점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조사가 분리되어 실시되지만 배우자 외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관련 문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가해자녀와 동거/비동거 여부, 가해자녀의 결혼상태, 경제적자립정도, 행위자 및 피해자의 건강 요인 등 인구사회학적인 세심한 분류와 함께 갈등요인, 성장과정에서의 폭력 노출이나 피해경험 등을 조사한다면 조사결과를 활용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성인자녀에 의한 부포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배우자 폭력/아동학대가 드러난 가정의 다양한 구성원간 폭력에 대한 스크리닝과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후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가해자에 강제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폭력 중단을 간절히 원하지만 법적 처벌로 자녀에게 피해가 가기를 원치 않거나 가족과의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공적인 도움 요청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보니 재학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폭력실태조사(2019)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른 가족원에 의한 폭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가족이라서' 66.2%, '창피하고 자

<sup>0.3%,</sup> 경제적 방임 0.2%로 나타남.

존심 상해서' 20.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노인이 자녀의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차원의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김기현, 김용희, 김경희, 2018; 김혜정, 조한나, 2015; 이상균 외, 2017)<sup>8)</sup>. 현행 배우자 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행위자와 피해 배우자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입도 이루어진다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폭력 피해 자녀에서 가해 자녀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존속 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 내 부모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에 의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하거나, 노년기 부모의 피해에 집중한다고 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sup>9)</sup>과 같이 노인에 대한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력은 배우자폭력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되는 과정이 있었고, 부모-자녀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정 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 하에 성장하던 자녀는 어느 시점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힘과 통제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부모는 물론 가해자녀에게도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주고 부모-자녀 관계는 폭력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폭력에 대한 상담과 개입에서는 이처럼 배우자폭력과는 다른 기제를 이해하고,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 특성이 고려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원간 폭력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폭력에 특화된 상담·개입 연구와 매뉴얼의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sup>8)</sup> 김기현, 김용희, 김경희(2018).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연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 사회복 지연구, 49(4), 221-249.

김혜정, 조한나(2015).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산여성가 족개발원.

이상균, 이봉주, 김세원, 김현수, 유조안, 장화정, 진미정, 박지명(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1-208.

<sup>9)</sup>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토론발표|

#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황 순 찬(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주제발표 요약 및 토론

- 4	Ⅰ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선망 - 수세말표 요약 및 토론				
제 목	주제	영역	내용	토론	
		가족 구조의 변화	<ul> <li>1인 가구의 증가와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감소</li> <li>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2.3명 수준)</li> <li>1인 가구 증가추세 지속</li> <li>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와가족 형태에 대한 유연성)</li> <li>다문화 가정의 증가</li> </ul>	<ul> <li>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 유대감 해체와 가족마저도 지지체계가 될 수 없는 현실 을 반영한 것일 수 있음</li> <li>해체되고 분리되어야만 공공으로부터 지</li> </ul>	
한 국 가 족	실태 로	가족 가치관 변화	<ul> <li>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비혈연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인식증가)</li> <li>물리적인 거주 공유보다 심리적인유대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증가(네트워크 사회, meta-verse)</li> <li>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결혼,출산당위성에 대한 태도 약화)</li> </ul>	<ul> <li>심리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족 외에 신뢰할 만한 지지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li> <li>가족이 지지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때대안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li> </ul>	
의변화양상과주요쟁점	본 한국 가족 의 변화	가족 기능	<ul> <li>재생산 기능 약화(출산율 0.84명, 저출산 1위, 2029년부터 인구감소 예상)</li> <li>출산기피-만혼, 양육부담(희망자녀수가 적정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li> <li>부양과 돌봄 기능의 약화(노인 부양관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비례관계)</li> <li>가족 간 부양책임 약화(단, 자녀취업 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증가)</li> </ul>	은 자살률, 잔인한 타살 증가, 저출산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취업 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성인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노후를 희생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 but 이러한	
		부부관계 및 가족 문화의 변화	<ul> <li>부부관계는 규범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변화(젊은세대의 의사소통 및전반족 만족도가 타연령대보다 높음)</li> <li>가사 분담 비율 증가, 부부관계 평등성 향상(젊은 세대. 고학력, 경제수준,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분담비율 높음)</li> <li>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강조하는가족문화 형성되고 있음</li> </ul>	• 부부관계 평등성은 안정된 결혼생활이 가능한 젊은 부부 세대를 전제로 한 것.	
		한국 가 <del>족</del> 의	•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관계 중심의 가족(규범보다는 가족구성원		

가족 의 변화	포스트 모던화 논쟁	간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관계중심적 가족)  5가지 가족형태-혼합적 가족형태, 독신, 시민가족, 분리동거형태, 편부모 가족(이 가운데 분리동거 형태가 가장 적합한 미래의 가족형태라고 봄)  한국가족담론에 내재된 근대의 이분 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젠더불평등 정당화나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제한 한 것에 대한 비판)  한국가족의 포스트모던화 논쟁-아직은 이혼, 재혼, 동성가족 등 다양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전통의 깨어짐" 수준) vs. 개인주의화와 가족생활의 탈제도화는 포스트모던 담론에 부합한다는 입장  가구 구성과 가구형태의 다양화, 결혼관·출산관 및 자녀관의 변화, 조류 기준의 총회 업본의 기계하도	으로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에 상응하는 물 적 토대가 있어야 함  •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화는 자발적으로 운동성을 갖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일 수 있음. 나타난 결과의 다양성만으로 포스트모던화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파생된 가구 다양성이 크고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근대적 가족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적 가족관이 부분적으로 혼재된 형태(ex. 40~50대 중년남성 1인 가구.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
를 어떻 게 볼 것 인가 ?	한국가족 의 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국적 가족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전통적 성별분업의 해체 등은 이미 근대적 정상 가족 개념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움(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자체가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 지지)  • 한국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가족위기론자 vs. 가족재구조화론  • 통합적 관점-가족문제(가족위기론)+가족문제해결(가족재구조화)	<ul> <li>장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li> <li>우리의 일상적 의식은 가족위기론에 머물러 있고, 사회현상은 가족재구조화론에 가깝고, 실천적 개입을 할 때는 통합적 관점이 활용되지 않을까?</li> </ul>
	한국가족, 위기인가? 적응인가? 의 논쟁	한국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적 응론자(가족의 변화는 긍정적) vs. 위 기론자(부부와 자녀라는 가족구성의 중심축 붕괴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위기론은 양육과 재생산이라는 가족 본연의 기능을 강조. 부모와 자 녀 관계의 약화가 가족의 핵심적 기 능을 와해시켜 위기를 초래한다고 봄	•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족 변화가 향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것으로 예측하는 적응론 입장은 긍정적. but 가 족 위기론은 가족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오직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어 근원적이고 대안적인 해 결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부모 - 성인 자녀 관계 의 특성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ul> <li>성인이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를 지속(캥거루족, 패러 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li> <li>청년실업률 증가,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기피 → 독립을 어렵게 함 → 갈등(상황적 요인에 의한 강제된 선택)</li> <li>자녀가 독립, 결혼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한국의 가족문화(with 비혼, 만혼 심화)</li> <li>자녀와 분리된 노후를 원하는 부모들(비독립 성인자녀 증가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노후빈곤 초래, 사회적노인부양부담으로 연결)</li> </ul>	과도한 가족복지(연복지) 의존 상황     같이 지내면 당연히 갈등도 빈번(ex. 영화 고령화 가족)

			<ul> <li>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 동거자녀로부터 더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없음(부모에게도 부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심리적 압박, 관계갈등의 원인)</li> <li>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면에서 부정적(비동거 성인자녀에 비해 친밀성이 떨어짐)</li> <li>'동거·의존형'비독립 성인자녀의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 수준은 낮고, 우울수준이 높음(이 경우에 부모도주관적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남)</li> </ul>	
		사회변화 와 성인자녀 의 비독립 현상	• 개인화된 사회(비혼, 무자녀 사회,	<ul> <li>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수 있는 조건들</li> <li>개인화와 근대적 가족관계 방식의 충돌</li> <li>독립할 수 있는 출구가 닫힌 상황</li> </ul>
		가족의 정의도, 함께 사는 것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ul> <li>탈표준화, 유연화</li> <li>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기준</li> <li>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개념에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관계로 변화</li> </ul>	• 어떤 형태로든 다양화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당분간은 제도적 가족 개념이 혼재된 형태로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한 국 가		개인화된 가족주의 는 확대될 것이다	기족가치가 개인중심의 가치로 변화(개인화)     개인화는 미래가족의 주된 가치     노동시장, 주택과 도시계획, 복지정     책, 교통정책, 가족정책 등은 개인     화된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생활     알 반영해야	• 사회제도와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에 맞 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 감
쪽의 전망과 대응	한국 가족 의 변화 전망	가족의 다양성은 커져 갈 것이다	<ul> <li>비혼독신, 비혼동거, 비혼출산, 무자녀, 다문화가족, 비혈연 가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변화</li> <li>결혼이 더 이상 가족형성에 전제가되지 않음(결혼과 가족의 탈제도화,탈법제화)</li> <li>전형적인 가족모델의 소멸 가능성</li> <li>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하지않는 정잭, 가족형성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li> </ul>	• 동감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은 소규모화 되고 있다	<ul> <li>한국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li> <li>사회제도 및 정책 설계 시 1인 가구가 정책요인으로 고려되어야(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 수의 감소)</li> <li>고연령대는 건강증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 젊은 세대들은 주거안정화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큼(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대책 마련 필요)</li> </ul>	• 동감

돌봄의 위기, 돌봄의 상품화로 대체될 것이다	<ul> <li>제도와 개인의 욕구, 규범과 개인의 가치가 상충</li> <li>개인주의 가치관은 가족의 보호기능 (부모부양, 자녀양육)에 변화 → 돌봄의 위기 가능성</li> <li>가족 의존형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체계로의 전환 필요</li> <li>돌봄노동을 상품으로 구매 or 공공지원서비스에 의존</li> </ul>	• 동감
저출산 문제, 사적영역 이 아닌 공적영역 의 중대 사안이다	무자녀 가족에 대한 가족가치관 확 산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 (획기적인 대안마련 필요)	•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 적 기질, 사회시스템 변화 필요
가 <del>족</del> 문화, 가 <del>족</del> 관계	<ul> <li>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족문화 변화의 주요동인</li> <li>여성 취업은 부부관계 평등화에 영향</li> <li>가족 내 성평등 인식 확산, 의사소 통과 관계 만족도 상승, 연령이 낮 을수록 평등한 가족생활</li> </ul>	• 전반적으로 동감 but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일수록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돌봄 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음
성인자녀 의 지체된 독립, 부모의 부담도 그만큼 연장될 것이다	<ul> <li>비독립이 개인의 욕구에 반하는 선택, 자율적 결정인 아닌 강요된 결정이라는 특성을 가짐(이러한 특성상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을 가진 관계)</li> <li>자녀부양 장기화에 따른 부모세대의 노후빈곤, 비독립 성인자녀의 삶의 질하락</li> <li>가족문제의 대응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틀에서 접근 필요</li> </ul>	• 가족 단위 자살과도 연결된 부분
갈등은 사회적	<ul> <li>사회 전반적인 환경에서 초래된 갈등,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응 필요</li> <li>별도의 독립된 주거 마련 방안에 초 점(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하 지 못함)</li> <li>일자리, 주거지원 정책, 원만한 가 족관계를 위한 지원</li> </ul>	• 국가도, 가족도, 개인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족기능 의 사회화, 더 생각할 일이 있다	<ul> <li>아동의 불안정한 양육, 빈곤한 한부모 가정의 문제, 저출산이 주는 사회적 위기, 노인부양 부담등과 같은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li> <li>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성평등 의식은증가했지만 과도기적 현상 존재(여성 한부모 가구는 이혼 후 소득감소로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됨)</li> </ul>	<ul> <li>근본적으로 일을 해도 생활자체가 어렵고 미래가 열리기 어려운 현실</li> <li>경제적 독립 여부와 직결된 이혼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li> </ul>

# ■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주제발표 요약 및 토론

제 목	주제	영역	내용	토론
		자녀와 배우자의 학대율	• 아들에 의한 학대(36.1→31.2) • 배우자에 의한 학대(15.4→30.3)	• 해당 기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2배 가 까이 증가(원인분석 필요)
	2015 ~ 2019	동거형태 별 학대율	<ul> <li>부부동거(21.2→31.8)</li> <li>자녀동거(26.7→30.3)</li> <li>노인단독(34.5→19.8)</li> </ul>	• 노인단독에서는 감소, 부부동거와 자녀 동거 형태에서 학대 증가(원인분석 필요)
	년 한국 현황	연령별 부모 폭력률	• 70대이상(27.0→30.4) • 30~40대(29.4→25.8)	• 해당 연령대에서 부모 폭력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원인분석 필요)
		유형별 부모 폭력률	<ul> <li>정서폭력(37.9→42.1)</li> <li>신체폭력(25.9→38.1)</li> <li>경제폭력(8.8→5.2)</li> </ul>	• 신체폭력이 급증한 이유(원인분석 필요)
비 독		연도별 부모폭력 수탁인원	• 6명→12명	• 2017년 이후 12명 수준(수탁된 사람에 대한 분석 필요)
립성인		자녀 연령별 부모 폭력률	• 20대 42.6 • 30대 35.2 • 40대 18.5 • 50대 3.7	• 젊은층에서 더 빈번하게 부모폭력이 발 생하는 이유(원인분석 필요)
자 녀 의 부	2016	직업별 부모 <del>폭</del> 력률	<ul> <li>무직 38.8</li> <li>단순노무 20.4</li> <li>회사원 18.5</li> <li>교육기술 7.4</li> </ul>	일이 없다는 것과 폭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필요    일자리-설자리-살자리-(삶의)끝자리
- 머 뿐 쨘 쨘 햐	~ 2020 년 한국	수입별 부모 폭력률	<ul> <li>수입없음 51.8</li> <li>100~200만원 20.4</li> <li>200-300만원 18.5</li> <li>300만원 이상 7.4</li> </ul>	• 무직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연결성
йo	가정 법률 상담 소	결혼여부 별 부모 폭력률	• 미혼 <b>90.7</b> • 기혼 9.3	• 미혼 상태에서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일 때 폭력 빈번
	현황	동거여부 별 부모 폭력률	• <b>동거 88.9</b> • 비동거 11.1	• 함께 사는 부모에 대한 폭력 빈번
		자녀 성별 부모 폭력률	• <b>아들 72.2</b> • 딸 27.8	• 아들이 더 폭력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 필요
		유형별 부모 폭력률	<ul><li>정서폭력 100.0</li><li>경미 신체폭력 77.8</li><li>심한 신체폭력 68.5</li></ul>	• 정서폭력을 기반으로 신체폭력 공존

비독립 성인자	부모폭력 이유	<ul> <li>행위자의 정신건강문제(게임중독 및 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18.5</li> <li>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 17.4</li> <li>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경험 16.3</li> <li>행위자의 정서적 문제(자존감 결여, 위축, 분노나 적대감 표현) 14.2</li> <li>부모간 폭력에 개입 13</li> <li>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12</li> <li>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7.5</li> <li>부모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1</li> </ul>	• 행위자의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존감, 자기애적 상처에 기인한 분노, 폭력의 대물림,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잘 수용 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지면의 바모폭력 웬	현장에서 느낀 원인(시계 열적)	<ul> <li>오래된 원인-어린시절 부모와의 부 정적인 관계</li> <li>쌓인 원인-크고 작은 반복되고 지속 적인 상처</li> <li>근래 원인-1년 이내 발생한 갈등과 상처</li> <li>직전 원인-최근 발생한 견디기 어려운 갈등과 사건</li> </ul>	• 문턱효과 확인
다	상담사례	폭력피해 부모 상담(상담 전 오랜관 행, 의기소침, 에너지 고갈, 신체 악화 상태에서 상담 후 정서안정, 자기이해, 자녀이해, 희망품기 상태로 변화됨)      부모폭력 자녀 상담(응어리해소, 자기이해, 부모이해, 관계원리 발견)	• 체험과 내러티브 중심 접근?
비 독 립	해법	• 가해 자녀 상담 〉피해 부모 상담	• 가해 자녀 상담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성 인 자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 관련자원 연계(치료상담시간 연장, 정기적 실태조사, 치료프로그램 개 발, 상담전문가 양성, 고령화시대 문제로 여론조성)→해결	• 별도의 인프라 구성 및 상담전문가 양성 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필요
년 의 부	부모폭력 전문 프로그램 마련	• 정보공유, 실태파악, 원인분석, 프로 그램 개발, 상담시행, 효과평가, EBP 프로그램 시행	• 일반적인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과의 차 별성은 무엇인지 설명 필요
모 폭 력 대 응	대응방안	• 상호협력에 의한 성과(법+기관+실무 자+전문가)	• 다학제적 팀 접근(구체적 협력방안과 실행체계 필요)

# |수탁상담통계|

#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 부모자녀간 폭력을 중심으로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목 차

제	1	장	서	론 8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85
	제	2	절	연구의 목적86
제	2	장	연	구대상 및 방법 87
	제	1	절	연구대상87
	제	2	절	연구방법87
제	3	장	연	구결과 88
	제	1	절	최근 5년간(2016~2020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분석 88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8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91
				3. 행위자의 폭력 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93
				4. 상담의 효과성95
	제	2	절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실태분석 98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98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100
				3. 행위자의 폭력 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103
				4. 상담의 효과성105
	제	3	절	상담사례
제	4	장	결	<b>론 및 제언</b> 112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112
	제	2	절	논의 및 제언 114
참.	고든	문한	<u> 1</u>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5월 28일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이 31.7%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는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족 및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하지 않은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발달과정상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보다는 '의존'이나 '유대'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긴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효'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는 여전히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폭력적인 환경은 폭력적인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대간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상담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6년 발표한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자녀는 어린 시절 지속적인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폭력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인이 된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부모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의존하면서, 음주와 담배 등중독의 문제로 끊임없이 부모와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가 폭력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부모 역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음주, 의처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호간 복합적인 문제의 마찰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서구 사회보다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개체 또는 인격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 의 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폭력을 쉽게 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 에는 이러한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순응하였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서 이에 대 한 분노는 공격성으로 이어져 무의식적으로 가정 내에서 학습되어진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인자녀들의 부모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또한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의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 하고 가정폭력의 양상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성인자녀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내폭력 또는 남편폭력, 더 나아가 자녀폭력까지 예 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최근 다양한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 증가,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이 다양한 가족 구성원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족관 계 확립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위촉되어 2021년 현재까지 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상담위탁된 총 행위자 수는 2,525명에 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폭력행사 이유, 상담처분을 통한 효과성 등을 살펴본다.
- 둘째, 최근 5년간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폭력행사 이유, 상담처분을 통한 효과성 등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적 차원의 가정 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방안을 모색한다.

#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어 상담이 종결된 부모를 폭력한 행위자(성인자녀) 54명<sup>10)</sup>, 성인자녀를 폭력한 행위자(부모) 71명<sup>11)</sup>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폭력행사 이유, 상담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다.

##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에 상담위탁되어 상담종결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 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과 본소에 위탁되어 상담 을 진행하고 종결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up>10)</sup>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사건의 수탁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94.4%(51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도별 수탁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12건, 2018년 12건, 2019년 12건, 2020년 12건이었다.

<sup>11)</sup>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사건의 수탁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97.2%(69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도별 수탁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10건, 2020년 16건이었다.

# 제 3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최근 5년간(2016~2020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분석

####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남녀별

행위자 54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9명(72.2%), 여성이 15명(27.8%)이었다.

	구 분	행 위 자		피 해 자		
성 별	<u> </u>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39	72.2	34	63.0	
여	성	15	27.8	20	37.0	
합	계	54	100	54	100	

< 표 3-1-1. 성별 분석 >

#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20대가 42.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 대(35.2%), 40대(18.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50대가 42.6%(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35.2%)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 연령은 32.7세였으며, 가장 낮은 나이는 20세, 가장 높은 나이는 53세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62.2세였으며, 가장 낮은 나이는 47세, 가장 높은 나이는 87세였다. 피해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72.2%(39세), 65세 이상인 경우는 27.8%(15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행유	리 자	ग्री ह	개 자
연 령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20	대	23	42.6	-	_
30	대	19	35.2	_	-
40	대	10	18.5	3	5.6
50	대	2	3.7	21	38.8
60	대	_	-	19	35.2
70	대	-	-	7	13.0
80	대	-	-	4	7.4
합	계	54	100	54	100

< 표 3-1-2. 연령별 분석 >

# (3)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2.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1.4%(17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27.8%(1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졸이하가 25.9%(14명)로 나타났다.

구 분	행 약	니 자	피 해 자	
교육정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	-	14	25.9
중 졸	3	5.6	8	14.8
고 졸	23	42.6	15	27.8
전문대졸	8	14.8	2	3.7
대 졸	17	31.4	9	16.7
대학원이상	3	5.6	6	11.1
합 계	54	100	54	100

< 표 3-1-3. 교육수준별 분석 >

#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38.8%(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 무가 20.4%(11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25.9%(14명)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와 무직이 각 22.2%(각 12명)로 많았다.

구 분	행 위 자		म ह	게 자
직 업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	_	14	25.9
회사원	10	18.5	4	7.4
단순노무	11	20.4	12	22.2
자영업	-	_	6	11.1
교육직	2	3.7	2	3.7
기술직	2	3.7	4	7.4
학생	7	13	_	-
종교인	1	1.9	_	-
무직	21	38.8	12	22.2
합 계	54	100	54	100

< 표 3-1-4. 교육정도별 분석 >

#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51.8%, 28명)와 피해자(44.5%, 24명) 모두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행 위 자		피 ਰ	
월 수 입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1	1.9	6	11.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	20.4	10	18.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	18.5	8	14.8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	3.7	2	3.7
500만원 이상	2	3.7	4	7.4
일정한 수입이 없음	28	51.8	24	44.5
합 계	54	100	54	100

< 표 3-1-5. 경제상태별 분석 >

# (6) 결혼여부

사건 당시 행위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90.7%(49명)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결혼여부	수 (명)	백분율(%)
미혼	49	90.7
기혼	5	9.3
합 계	54	100

< 표 3-1-6. 사건당시 행위자의 결혼여부 분석 >

## (7) 부모와 동거여부

사건 당시 행위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88.9%(48명)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48명 중 64.8%(3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수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구 분 부모와 동거여부	수 (명)	백분율(%)
동거	48	88.9
비동거	6	11.1
합 계	54	100

< 표 3-1-7. 사건당시 부모와 동거여부 분석 >

#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아버지 폭력이 51.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들에 의한 어머니 폭력이 20.4%(11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폭력유형	수(명)	백분율(%)
아들에 의한 아버지 폭력	28	51.8
아들에 의한 어머니 폭력	11	20.4
딸에 의한 아버지 폭력	7	13.0
딸에 의한 어머니 폭력	8	14.8
합계	54	100

< 표 3-1-8. 폭력유형별 분석 >

##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4.4%(51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10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도 5.6%(3명)에 달했다.

구 분 폭력수준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51	94.4
1주 이상 ~ 5주 미만	2	3.7
5주 이상 ~ 10주 미만	1	1.9
합 계	54	100

< 표 3-1-9. 폭력행위의 수준에 따른 분석 >

## (3)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존속폭행'인 경우가 49.9%(2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존속상해'가 11.1%(6명)로 많았다.

구 분 폭력수준	수(명)	백분율(%)
존속폭행	27	49.9
존속상해	6	11.1
재물손괴	5	9.2
존속폭행, 재물손괴	3	5.4
폭행	2	3.6
특수폭행	1	1.9
특수상해	1	1.9
특수협박	1	1.9
특수존속협박	1	1.9
특수재물손괴	1	1.9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1	1.9
존속폭행, 특수협박	1	1.9
존속폭행, 존속협박	1	1.9
존속협박	1	1.9
재물손괴, 폭행, 존속상해	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 존속상해)	1	1.9
합 계	54	100

< 표 3-1-10.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분석 >

# (4)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 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 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8%(42명)로,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9.3%(32명)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진 경우가 53.7%(29명)로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68.5%(37명)로,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6.3%(71명)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5.2%(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건으로 사용해 때리거나(16.7%) 칼이나 망치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 또는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가 14.8%(8명)로 나타났다.

행위자 54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여 부모로 하여금 더욱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동 유무
생 폭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54(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_	54(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28(51.9)	26(48.1)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30(55.6)	24(44.4)
4. 부모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52(96.3)	2(3.7)
5. 부모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51(94.4)	3(5.6)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52(96.3)	2(3.7)
경미한 신체적 폭력	12(22.2	42(77.8)
7. 부모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25(46.3)	29(53.7)
8.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22(40.7)	32(59.3)
9.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26(48.1)	28(51.9)
심한 신체적 폭력	17(31.5)	37(68.5)
10.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28(51.9)	26(48.1)
11. 부모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45(83.3)	9(16.7)
12. 부모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5(64.8)	19(35.2)
	51(94.4)	3(5.6)
14. 부모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46(85.2)	8(14.8)
15. 부모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46(85.2)	8(14.8)

< 표 3-1-11.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 (1) 폭력행사 이유

부모를 폭력한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 개인요인, 가족상황 요인, 부모인 피해자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폭력 행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 강 문제(18.5%, 17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음주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폭력을 하게 된경우도 있었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 개인의 경제적 특성으로 나타났다(17.4%, 16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직업을 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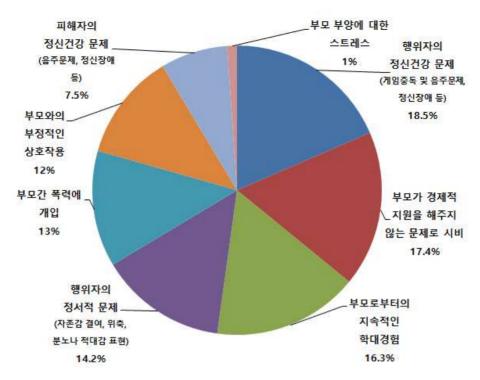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는 행위자는 경제적 지원을 축소 내지는 중단하겠다는 부모와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가 폭력이 발생되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상황 요인으로 어린 시절 지속적인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부모의 폭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16.3%, 15건). 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갈등해결의 한 가지 방법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었고, 자신과 부모가 갈등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습득한 해결방법인 폭력을 선택하게 되었다.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폭력행사 이	0	수(건)	백분율(%)	
	Nata En	정신건강 문제 (게임중독 및 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17	18.5
행위자 개인요인	심리적 특성	정서적 문제 (자존감 결여, 위축, 분노나 적대감 표현)	13	14.2
	경제적 특성	부모에의 경제적 의존	16	17.4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폭력의 학습)	15	16.3
가족상황	가족관계	부모간 폭력에 개입	12	13
요인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11	12
	부양관련	부모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1	1.1
피해자 요인	심리적 특성	정신건강 문제 (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7	7.5
	;	합계	92	100

< 표 3-1-12.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



[ 그림 1.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행사 이유 ]

# 4. 상담의 효과성

## (1) 폭력재발 여부

성인자녀 54명의 폭력재발 여부를 살펴보면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 담종료시까지 96.3%(52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구 분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52	96.3
폭력재발 함 <sup>12)</sup>	2	3.7
합 계	54	100

< 표 3-1-13. 상담종료시 성인자녀의 폭력재발 여부 분석 >

## (2)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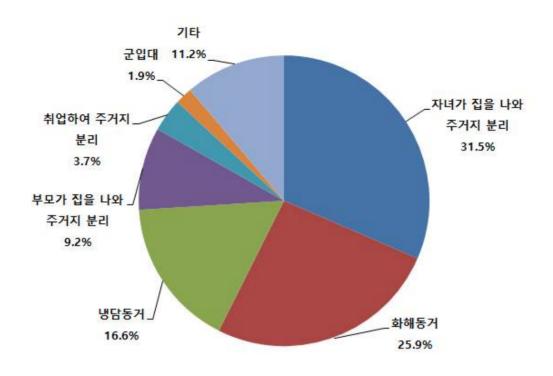
<sup>12)</sup> 폭력이 재발된 2명 중 1명은 보호관찰로 처분변경되었고, 1명은 수강명령으로 처분이 변경되었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가 31.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성인자녀인 행위자와 피해자인 부모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25.9%(14명)로 나타났다. 또 관계가 냉담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도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수(명)	백분율(%)
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 분리 (경제적인 의존 있음)	17	31.5
화해동거	14	25.9
냉담동거	9	16.6
부모가 집을 나와 주거지 분리	5	9.2
취업하여 주거지 분리 (경제적으로 독립함)	2	3.7
군입대	1	1.9
기타 <sup>13)</sup>	6	11.2
합 계	54	100

< 표 3-1-14. 상담종료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분석 >

<sup>13)</sup> 보호처분 변경(5.6%, 3명), 기간연장(5.6%, 3명)을 포함하였다.



[ 그림 2. 상담종료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

## 제 2 절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실태분석

#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남녀별

행위자 71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56명(78.9%), 여성이 15명(21.1%)이었다.

	구 분	행 위 자		피 해 자	
성 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56	78.9	33	46.5
여	성	15	21.1	38	53.4
핞	계	71	100	71	100

< 표 3-2-1. 성별 분석 >

##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50대가 60.6%(4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 대(29.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20대가 62%(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9.6%)로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 연령은 58.3세였으며, 가장 낮은 나이는 40세, 가장 높은 나이는 73세였다. 행위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72.2%(39명), 65세 이상인 경우는 27.8%(1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8.2세였으며, 가장 낮은 나이는 20세, 가장 높은 나이는 43세였다.

구 분	행 위 자		피 해 자	
연 령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20 대	-	-	44	62.0
30 대	_	-	21	29.6
40 대	3	4.2	5	7.0
50 대	43	60.6	1	1.4
60 대	21	29.6	_	_
70 대	4	5.6	_	_
합 계	71	100	71	100

< 표 3-2-2. 연령별 분석 >

# (3)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 26.8%(각 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18.3%(17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63.4%(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9.7%(14명)로 나타났다.

구분	행 위 자		피 해 자	
교육정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8	11.3	1	1.4
중 졸	13	18.3	1	1.4
고 졸	19	26.8	14	19.7
전문대졸	4	5.6	8	11.3
대 졸	19	26.8	45	63.4
대학원이상	8	11.3	2	2.8
합 계	71	100	71	100

< 표 3-2-3. 교육수준별 분석 >

#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25.4%(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 무가 22.5%(16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생이 32.4%(23명)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무직이 28.2%(20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행 위 자		피 해 자	
직 업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7	9.9	4	5.6
회사원	11	15.5	16	22.5
단순노무	16	22.5	2	2.8
자영업	11	15.5	_	-
교육직	2	2.8	1	1.4
전문직	-	-	3	4.2
기술직	4	5.6	2	2.8
학생	-	-	23	32.4
운전	2	2.8	_	-
무직	18	25.4	20	28.2
합 계	71	100	71	100

< 표 3-2-4. 교육정도별 분석 >

##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31%, 22명)와 피해자(64.8%, 46명) 모두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행 위 자		피 해 자	
월 수 입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1	1.4	2	2.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5	21.1	10	14.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	18.3	9	12.7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8.5	2	2.8
500만원 이상	14	19.7	2	2.8
일정한 수입이 없음	22	31.0	46	64.8
합계	71	100	71	100

< 표 3-2-5. 경제상태별 분석 >

## (6) 자녀와 동거여부

사건 당시 행위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90.1%(64명)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4명 중 이들 자녀의 70.3%(4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7명(9.9%)은 자녀가 원거리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하면서 독립하였거나,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였다.

구 분 자녀와 동거여부	수 (명)	백분율(%)
동거	64	90.1
비동거	7	9.9
합 계	71	100

< 표 3-2-6. 사건당시 자녀와 동거여부 분석 >

#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에 의한 아들 폭력이 42.3%(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 폭력이 36.6%(26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폭력유형	수(명)	백분율(%)
아버지에 의한 아들 폭력	30	42.3
아버지에 의한 딸 폭력	26	36.6
어머니에 의한 아들 폭력	3	4.2
어머니에 의한 딸 폭력	12	16.9
합계	71	100

< 표 3-2-7. 폭력유형별 분석 >

#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5.8%(68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도 4.2%(3)에 달했다.

구 분 폭력수준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68	95.8
1주 이상 ~ 5주 미만	3	4.2
합 계	71	100

< 표 3-2-8. 폭력행위의 수준에 따른 분석 >

## (3)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9.2%(4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9.9%(7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에 있어서도,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 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인 자녀가 이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구 분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폭행	42	59.2
특수협박	6	8.5
상해	5	7.0
폭행, 특수협박	4	5.6
특수폭행	3	4.2
폭행, 재물손괴	3	4.2
폭행치상	2	2.8
협박	1	1.4
특수상해	1	1.4
폭행, 협박	1	1.4
상해, 폭행, 협박	1	1.4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1	1.4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1	1.4
합계	71	100

< 표 3-2-9.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분석 >

#### (4) 폭력행위의 정도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5%(55명)로,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66.2%(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경우가 54.9%(39명)로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 역시 77.5%(55명)로, 자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한 경우가 56.3%(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는 45.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과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 또는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도 32.4%(23명)로 나타났다.

행위자 71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위축시키는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항 목		 폭력행동 유무	
		있음(%)	
정서적 폭력	-	71(100)	
1. 모욕적인 말이나 <del>욕을</del> 했다.	_	71(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39(54.9)	32(45.1)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42(59.2)	29(40.8)	
4. 자녀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70(98.6)	1(1.4)	
5.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70(98.6)	1(1.4)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70(98.6)	1(1.4)	
경미한 신체적 폭력	16(22.5)	55(77.5)	
7. 자녀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46(64.8)	25(35.2)	
8. 자녀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32(45.1)	39(54.9)	
9.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24(33.8)	47(66.2)	
심한 신체적 폭력		55(77.5)	
10. 자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31(43.7)	40(56.3)	
11. 자녀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54(76.1)	17(23.9)	
12. 자녀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9(54.9)	32(45.1)	
13. 자녀 목을 졸랐다.	59(83.1)	12(16.9)	
14. 자녀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49(69.0)	22(31.0)	
15. 자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48(67.6)	23(32.4)	

< 표 3-2-10.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 (1) 폭력행사 이유

자녀를 폭력한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 개인요인, 가족상황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자녀인 피해자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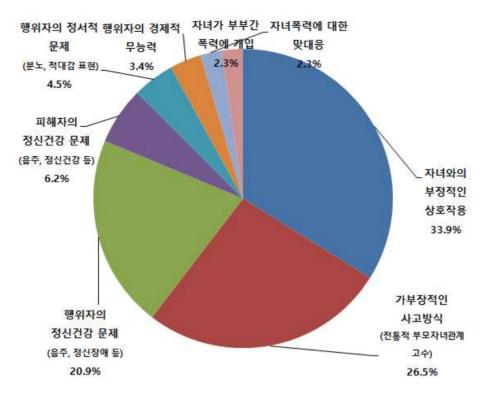
첫째, 행위자의 자녀폭력 행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상황 요 인으로 가족관계에서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33.9%(60건)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가 문제행동(잦은 외박이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생활태도, 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일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 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면서 지적하고 훈육하 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60건 중 53건).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나 애정결핍 등 자신의 정서적 욕구불만을 표현했을 때 이를 공감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한 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60건 중 4건).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었다(26.5%, 47건). 즉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와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호간 존중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전통적인 수직적 부모자녀관계를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수직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의 개인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에 기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20.9%, 37건). 이들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7건 중 27건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개인요인 중 음주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는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서 약을 복용중이거나 치료중인 경험이 있었으나 임의로 약복용과 치료를 중단하여 증세가 악화되면서 폭력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37건 중 10건).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구 분 폭력행사 이유			수(건)	백분율(%)
가족상황 요인	가족관계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60	33.9
		자녀폭력에 대한 맞대응	4	2.3
		자녀가 부부간 폭력에 개입	4	2.3
사회문화적 요인	가치관	가부장적 사고방식 (전통적 부모자녀관계 고수	47	26.5
행위자 개인요인	심리적 특성	정신건강 문제 (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37	20.9
		정서적 문제 (분노나 적대감 표현)	8	4.5
	경제적 특성	경제적 무능력	6	3.4
피해자 개인요인	심리적 특성	정신건강 문제 (음주문제, 정신장애 등)	11	6.2
합계			177	100

< 표 3-2-11.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



[ 그림 3.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이유 ]

## 4. 상담의 효과성

## (1)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 71명의 폭력재발 여부를 살펴보면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 종료시까지 98.6%(70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구 분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70	98.6
폭력재발 함 <sup>14)</sup>	1	1.4
합 계	71	100

< 표 3-2-12. 상담종료시 부모의 폭력재발 여부 분석 >

## (2)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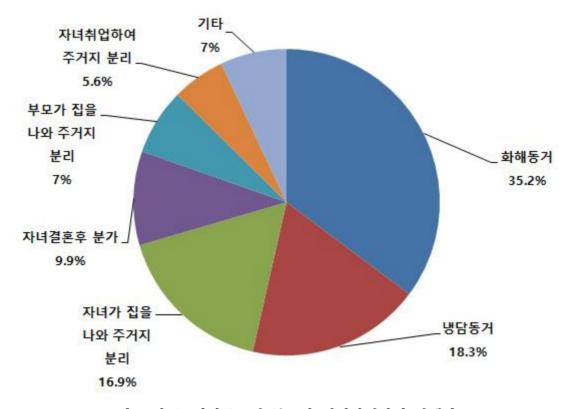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sup>14)</sup> 폭력이 재발된 1명은 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되었다.

35.2%(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계가 냉담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가 18.3%(1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도 16.9%(1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위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동거	25	35.2
냉담동거	13	18.3
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 분리 (경제적인 의존 있음)	12	16.9
자녀 결혼 후 분가	7	9.9
부모가 집을 나와 주거지 분리	5	7.0
자녀가 취업하여 주거지 분리 (경제적으로 독립함)	4	5.6
기타 <sup>15)</sup>	5	7.0
합 계	71	100

< 표 3-2-13. 상담종료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분석 >



[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

<sup>15)</sup> 보호처분 변경(4.2%, 3명), 기간연장(1.4%, 1명), 행위자 사망(1.4%, 1명)을 포함하였다.

### 제 3 절 상담사례

### 부모와 성인자녀간 쌍방폭력 사례 ①

#### < 사건번호 >

2016버6\*\* 폭행

2016버6\*\* 존속폭행

### < 상담진행 >

행위자(아버지, 50대) 개별상담 5회, 자녀폭력 부모대상 집단상담 5회기, 교육강좌 3회행위자(아들, 20대) 개별상담 5회, 부모폭력 자녀대상 집단상담 4회기, 교육강좌 3회아내(어머니)와 함께 가족상담 1회 등 총 26회 실시

### < 상담기간 >

2016. 7. 14. ~ 2017. 1. 5.

### <수탁 경위>

본건 폭행사건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막내 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아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부자가 함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음.

### <상담 경과>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왔음. 10살 이상 차이나는 막둥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편에는 더욱 심해졌는데 아들은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막내 동생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잘못해도 '폭력'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쌓이게 되었음.

상담초기 아버지는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며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였고 아무리 자식이지만 밉고 보기 싫다며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상처를 생각해보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 대상 집단상담에 참석하면서도 매우 방어적이고 거부적인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점차 처분과정을 이행하면서 아들은 밉고 보기 싫은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돌아보게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상담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부모로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 또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비난이 아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깨닫고 아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력도 기울이게 되었음.

한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서 분노상황이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내면의 여유를 찾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였음. 어린 시절부터 진정성이 부족한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가정이라는 공간과 부모에 대해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인한 내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이 매우 높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음. 부모에게 작은 것이라도 인정받기 위해 형제간의 차별대우를 참고 있으며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다소 강박적인 경향도 보였음.

처분과정을 통하여 아버지는 가족관계 특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생각해보고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있었음. 또한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찾을 수 있는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가족상담을 통하여 실제로 두 사람의 변화를 확인할 수있었는데, 아내(어머니)는 아들에게 형, 오빠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남매간의질서를 세울 것을 약속하였음.

## 부모와 성인자녀간 쌍방폭력 사례 ②

#### < 사건번호 >

2020버3\*\* 폭행

2020버3\*\* 특수존속협박

### < 상담진행 >

행위자(아버지, 50대) 개별상담 2회,

행위자(아들, 20대) 개별상담 2회,

부자상담 10회, 아내(어머니), 둘째 아들(동생)과 함께 가족상담 3회 등 총 17회 실시

## < 상담기간 >

2020. 7. 17. ~ 2021. 1. 14.

## <수탁 경위>

본건 폭행사건에서 아들은 주거지 내에서 아버지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집안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이 되었음.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화장실 내 용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알루미늄 금속으로 되어 있는 변기막힘 청소도구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으며, 아들이 화장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발로 아들의 왼쪽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기에 부자가 함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음.

### <상담 경과>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와 대학생인 아들은 부자관계임. 올해 초 아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가족 모두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 어서 갈등이 깊어짐.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가족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되었고, 가족은 아들의 정신장애 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채 현상만을 비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아들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는 관계사고, 피해망상, 전파망상, 감정조절 어려움, 약간의 환청 등이며 무미건조한 정동, 사회적 철회, 정서적 위축 등의음성증상을 보였음. 부자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도 동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신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 매회 상담을 통해 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같은 또래의 정상인을 기준으로 아들과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 및 재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가족의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음.

가족 전체가 상담을 통해 병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아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의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를 탐색하고 재활 및 회복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음. 아들 역시 자신이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흥분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상담현장에서 대화법 훈련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음.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아들의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패턴의 변화, 운동과 산책 등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아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아들의 대학 졸업 후 진로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아들이 현실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음.

###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사례

### < 사건번호 >

2019버14\*\* 존속폭행

### < 상담진행 >

행위자(아들, 40대) 개별상담 8회, 부모폭력 자녀대상 집단상담 4회기, 전화상담 3회 피해자(아버지, 80대) 및 어머니와 함께 가족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 < 상담기간 >

2019. 9. 2. ~ 2020. 2. 24.

### <수탁 경위>

본건 폭행사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행위자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을 수회 폭행하였기에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음.

#### <상담 경과>

택배기사인 행위자(아들)와 무직인 피해자(아버지)는 부자관계임.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행위자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음.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부모로부터 무시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많이 위축되었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살게 되었음. 행위자는 3남1녀 중 셋째인데, 부모가 다른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은편이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나, 행위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대화도 전혀 하지않는 상태로 생활했다고 함. 특히 다른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들, 내 새끼'라는 호청을 쓰는 한편, 행위자에게는 '셋째'라거나 'XX 새끼'라고 부르는 등 부모로부터상처를 많이 받아 사이가 좋지 않아음. 이러한 행위자는 자활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 좀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하여 부모에게서 온전히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처분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는 많은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수 있었음. 개인적으로는 첫째, 구청에서 연계해준 세 번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담현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였고 둘째, 자활을 기반으로 좀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셋째, 내담자의 사정을 알고 응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음. 또한 환경적으로는 구청 및 자활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었음. 행위자는 상담처분을 통해 자신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자활을통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그동안 위축되어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만남을 갖기 시작했으며,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 보증금을 조금씩 모으는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폭력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분지어 생각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음. 부모가 걱정되어 부모 집을 방문하더라도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부모를 살펴보고 안부를 묻고 돌아가는 정도 로만 하고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행위자와 부딪힐 일이 없어 마음이 편하고, 행 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역할은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 이 되었음.

## 제 4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위탁되어 처분이 종결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결정문에 기재된 내용과 본소에 위탁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 중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인 성인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들이 72.2%(39명), 딸이 27.8%(15명)로 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유형으로는 아들에 의한 아버지 폭력이 51.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들에 의한 어머니 폭력이 20.4%(11명)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의 연령은 20대가 42.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2.7세였다. 반면 피해자인 부모의 연령은 50대가 42.6%(21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2.2세였다. 피해자인 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가 72.2%(39명)로 많았다.

둘째, 성인자녀의 경우 미혼이 90.7%(49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88.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48명 중 64.8%(35명)은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셋째, 성인자녀 54명은 모두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자녀의 정서적 폭력은 부모로 하여금 수치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무력 감과 절망감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8%(42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9.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8.5%(37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48.1%(26명)로 가장 많았다

넷째,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행사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18.5%, 17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17.4%, 16건),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학대경험(16.3%,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음주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하였다. 또한

성인자녀가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폭력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상담종료시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인 성인자녀 96.3%(52명) 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가 31.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 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주요 연구결과 중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인 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78.9%(56명), 어머니가 21.1%(15명)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유형으로는 아버지에 의한 아들 폭력이 42.3%(30명)고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 폭력이 36.6%(26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50대가 60.6%(43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58.3세였다. 반면 피해자인 자녀의 연령은 20대가 62%(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8.2세였다.

둘째, 행위자인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90.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4명 중 이들 자녀의 70.3%(4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거나, 학생의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 71명 모두 성인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부모의 정서적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자존감을 위축시키는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게 한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5%(55명)로 나타났으며,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66.2%(47명)로 가장 많았다. 심한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5%(55명)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56.3%(40명)로 가장 많았다.

넷째,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33.9%, 60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26.5%, 47명),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20.9%,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성인자녀가 문제행동(잦은 외박이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생활태도, 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일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면서 지적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상담종료시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인 부모 98.6%(70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서로 화해하 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5.2%(25명)로 가장 많았다.

###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 증가,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 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에게 폭력을 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된 성인자녀는 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72.2%), 20대가 가장 많으며(42.6%), 미혼인 상태로(90.7%) 대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88.9%). 부모폭력 이유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모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담처분 종료시 성인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96.3%) 여전히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자녀에게 폭력을 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부모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많고(81.7%), 50대가 가장 많으며(60.6%), 대체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0.1%). 자녀폭력의 행사 이유는 가족관계에서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 등을 사용하여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담처분 종료시 부모와 성인자녀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35.2%).

향후 가정폭력 상담,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상담할 때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미시적 차원(상담현장), 사회적 차원(교육 및 인식 개선), 거시적 차원(정책 및 제도)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진행할 때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자녀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인기 자녀 등 발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폭력 발생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기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및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원인 중 부모(부부)의 폭력에 자녀가 개입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상담현장은 주목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폭력문제를 상담할 때 그 가족의 폭력 역사를 탐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 폭력을 한 부모, 부모에게 폭력을 한 자녀 모두 과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내 폭력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역동을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상담개입의 방향성을 설정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예방 교육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정서적 폭력을 수반하였다. 폭력행동은 욕설이나 심한 말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에서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또는 부모교육시 욕설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강조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필요하다. 또한 폭력의 범주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전 부모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부모교육을 통해 상호간 존중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마음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정립하며 자녀를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자녀간 폭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상담소는 오래 전부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정책 및 제도적으로 부모폭력을 공적 이슈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부모폭력을 개인적 인격 파탄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러한 낙인은 자녀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부모폭력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한 성인자녀의 특성 중 미혼, 부모와 동거, 경제적 의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다.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족내부적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측면, 고용불안정과 실업현상 등의 경제적 측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발달적 측면, 더 나아가 정책적 지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6).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